



교정동우회가 회원의 복리 증진과 권익 신장에 힘쓰겠습니다

연혁

- 1963. 10. 1. 퇴직 정기관장 중심 '교우회' 발족
- 1983. 11. 4. 정부 방침으로 전국 규모 교정동우회 출범
- 2013. 7. 29.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공포·시행

목적

- 회원들의 교정 경험·지식 공유를 통한 교정 발전 기여
- 국민들의 법질서 의식 함양, 교정의 선진화 등 공익 실현
- 회원 상호 간 유대 강화 및 상부상조, 친목 도모

조직

- 임원진 :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 대의원
- 지 회 : 37개 지회(정우회 포함)
- 회 원 : 정회원 3,730여 명, 명예회원(현직 교정공무원) 16,716명

주요사업 및 활동사항

- 회원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사업
- 상부상조 및 친목 도모
- 현직 직원과의 유대강화 및 교정 참여 활동
- 수용자 교정·교화 및 출소자 재사회화 사업
- 도서출판 및 판매 등 수익사업
-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 사업
- 지역사회 유대강화 및 봉사활동 등

교정동우회 회원 전문 강사 활동

- 2025년 4월부터 (사)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회원 중 관련 전문성과 다양한 경력을 갖춘 퇴직 교정공무원들이 주요 교정기관에서 심리치료 및 마약중독재활프로그램 강사로 활동('25년 50여 명 활동 예정).

전국 각 지회 현황 (2025. 6. 현재)

지역별	지회별	회장	사무국장	지역별	지회별	회장	사무국장	지역별	지회별	회장	사무국장
서울지역	본회	송영삼	정명철	강원지역	원주	임희재	박원규	경남지역	울산	정진훈	공정술
	정우회	나승두			강릉	권혁무	강기원		통영	김정섭	고영기
	서울	박수호	안승용		대구	조천해	이종완		대전	김영복	최관규
	동부구	백봉기	안외섭		대구구	정화선	이영준		천안	이행철	(회장겸직)
	남부구	진기대	류성현		안동	김수한	박성용		공주	명제능	김세환
경기지역	남부교	이종근	김범남	경북지역	김천	장종현	황영복	충청지역	홍성	추현국	김원정
	안양	박상재	조성주		경주	서경석	최현찬		청주	오호성	남익우
	인천	허역인	장재학		청송	김형선	이오우		전주	김재영	이만호
	수원	유병성	한춘택		부산	조경종	장성환		군산	나종철	김형섭
	평택	권윤식	구자현		부산강서	김영귀	전준석	전남, 제주지역	광주	배정배	이성재
강원지역	의정부	이상수	민경주	경남지역	창원	김종우	주강돈		목포	서춘호	박종화
	춘천	이홍남	박근수		진주	한윤갑	조호제		순천	조점기	김은섭
									장흥	이상실	강근배
									제주	고덕훈	김정의

가입문의

(사)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34 교정공제회 역삼빌딩 10층
- Tel. 02-521-2026 | FAX. 02-6952-2023 | <http://www.kncova.or.kr>
- 전국 지역별 각 지회 : 퇴직 시 소속 교정기관 총무과 문의



교정

vol.589.
2025. June

06

Blossom

법무부 교정본부

Contents

vol.589_2025. June



아름다운 동행

04 함께하는 길

우학종과 80 전사
이태희 교정대상심사위원장(前 교정본부장)

08 생각의 창

‘125% vs 47%’— 한일 수용물 격차의 결정적 차이는?
김동욱 교정본부 교정정보빅데이터팀 교정관

14 우리는 한마음

수용자와 함께한 시간,
삶을 비추는 빛으로
인터뷰 | 박수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서울지회 지회장

교정 이야기

18 교정 이모저모 ①

순직 선배들의 뜻 되새기며...
교정본부, 충혼탑 참배 행사 거행

20 교정 이모저모 ②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22 교정 이모저모 ③

깊게 뿌리 내린 아이들이 활짝 피는 세상을 꿈꾸다

26 교정 기관

아픔의 자리에 피어난 ‘꽃’, 묵묵한 교정의 마음을 잇다
군산교도소

32 교정과 사람들

교정 너머의 ‘삶’을 준비하는,
기술 넘어 ‘일상’으로의 안내자
군산교도소 직업훈련과

교정 아카이브

36 교정 포커스

훗카이도 개척기
일본 감옥의 특성과 수용자 노동의 함의
김형주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교수

60 교정 논문

남·북한 교정행정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하)
정상규 前 부산교도소 교위

72 교정 리포트

성폭력사범의 인문융합치료 기반
교정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상)
김진선 인하대학교 인문학술연구교수

교정 뉴스

86 교정본부 NEWS

88 교정기관 NEWS

95 모범 공무원

96 독자마당



COVER STORY

교정 현장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자신의 역할과 신념을 깊이 다져가는 숭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꽃봉오리가 새벽의 찬 공기를 건디며 서서히 꽃잎을 펼쳐듯, 교정인들은 자신만의 빛을 은은하게 밝히며 조직과 사회를 비추는 존재로 성장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교정공무원’으로서 견고해지는 여정임을 늘 기억합시다.

아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발행인 이흥연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발행일 2025년 6월 11일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kcs_TV 인스타그램 [instagram/korea_correctional_service/](https://www.instagram.com/korea_correctional_service/)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학종과 80 전사



이태희
교정대상심사위원장
(前 교정본부장)

지난 2023년 6월 26일, 6.25 동란 시 교정시설을 방호하다가 순국한 교도관 (167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서울남부교도소 진입로 인근에 충혼탑을 세우고, 그 제막식을 성대히 거행한 바 있었습니다. 해마다 6월이 오면 고개 떨구고 곱씹었던 공분과 마음의 허기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던, 참으로 뜻깊은 날이었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재향교정동우회장의 자격으로 헌화하면서, 가치 있는 것은 언젠가는 발견된다는, 그리고 또한 시대가 위인을 재발견하기도 한다는 섭리의 무거움을 새삼 고개 끄덕일 따름이었지요.

해를 뛰어넘어 다시 6월을 맞이하고 보니, 교정 충혼탑의 존재로 하여 가슴에 담아내는 6.25란 역사의 울림이 이렇듯 배가되어 다가오고, 또한 더욱 각별하게 마음의 손을 모으게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생각과 마음이 그리하노라면, 교정 충혼탑이 있기 전 6월이면 언제나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던 불멸의 표지석_개성형무소장 우학종의 흉상이 또한 뇌리를 스쳐 지나고 맙니다. 청계산 자락 서울구치소 한 모퉁이에 비록 작은 흉상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러나 늘상 큰 바위 얼굴처럼 우리 마음에 자리 하였고, 언제라도 팔 벌려 우리를 부르고 또 품어 안곤 했었지요. '시대가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 역사로 다가왔던 때'의 엄숙함과 절절함을 그 품에서 깨우치며 입술 깨물곤 했었답니다.

우학종, 어쩌면 역사의 먹살을 잡고자 했던 사나이! 그 이름을 되뇌이노라면 비단 6월이 아니어도 언제나 가슴이 먹먹해지고 맙니다. 한 사람 인생의 시련과 도전, 회한과 다짐이 그토록 장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교도관으로서 자기희생을 감수한 사나이의 삶이 또 그리 의연하고 범상치 아니한 것이라면, 그 발자취를 조명하여 후대에 이르기까지 우국충정의 표상으로 기리고 추앙함이 지극히 마땅한 도리요 의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오래전 필자가 교정과 서기관으로 근무했던 98년도의 교정지에 우학종 소장을 이미 한 번 거론한 바 있었으되 작금에 새로 입직한 후배님들이 다수 재직하고 있음을 감안, 역사로 남은 그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쫓아가 볼까 합니다.

우학종이 소장으로 재직하던 개성소년형무소는 38선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개성시 선죽동 208번지 송악산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6월 25일 새벽 요란한 총성에 심상치 아니한 사태의 추이를 예견한 소장은 즉시 전 직원의 비상소집을 명하였으나, 그러나 직원들이 미처 응소할 겨를도 없이 형무소는 이미 북괴군에 의해 포위된 형국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퇴로가 끊어지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소개 지시를 받지 못하였으니, 소장은 형무소 사수를 결심하고 당시 근무 중이던 80명의 직원과 함께 방어전투를 준비하였습니다. 감시대와 주벽을 방책으로 삼고 각 요소마다 직원들을 배치하는 등 만반의 항전 태세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적의 공격을 지연시키노라면 인근의 국군 12연대가 출동·지원할 것이라고 믿었고, 배치 현장을 순시하며 직원들에게도 그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사기와 전투의지를 북돋우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점에는 개성 시내가 벌써 적의 수중에 떨어진 뒤였고, 적의 선봉은 이미 포천과 동두천까지 진출하고 있었음을 이들만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전격전으로 인한 연전연승의 승리감에 도취되어 형무소 하나쯤은 손바닥 뒤집듯 쉽게 점령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던 침입자들은 뜻밖에도 형무소의 강력한 저항을 마주하게 되자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잠시 공격을 멈추고는 포로로 잡은, 비상소집 응소 중이었던 직원들 및 직원 가족들을 인질로 삼아 형무소의 투항을 종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소장 이하 전직원들은, 아프지만 비장한 결단과 다짐을 서로 나누며 항전과 사수의 의지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투항의 설득작전이 먹히지 않자 마침내 북괴군은 총공격을 감행, 형무소측의 격렬한 응전에도 불구하고 공격제파를 연이어 투입하며 파상공격을 감행해 왔습니다. 소장과 80명의 전사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총구의 노리쇠를 당기며 사투를 벌였으나 병력과 장비의 열세는 물론, 주벽 너머로 수류탄을 던지는 등 집요하게 달라붙는 적의 공격으로 부상자는 급격히 늘어나니, 급기야 30여 명의 소년수형자들까지 자원하여 부상자 치료 및 탄약 운반을 돕는 등 실로 감당하기 힘든 전투를 힘겹게 버티어 내고 있었습니다.

장장 10시간에 걸친 항전으로 화력이 바닥나고 사상자가 급증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군병력의 지원이 전무함은 물론 모든 통신조차 두절되기에 이르니, 방어전투에 임하던 직원들의 사기는 빠르게 가라앉았고, 소내에는 일시에



패배의 두려움과 함께 무력감이 감돌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자 우학중 소장은 잠시 생각하고 빠르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죽음이란 게 어차피 삶과 맞닿아 있는 것이거늘, ‘마치 솟돌에 몸을 가는 것 같은’ 그 아픈 소모의 시간을 더는 지속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죽음 가득한 행간에 꼭꼭 숨겨 두었던 생의 의지마저 과감하게 구겨 던져 버리고는 스스로의 전쟁을 마감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윽고 그는 모든 직원을 불러 퇴각을 지시한 뒤 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우리는 열심히 싸웠다. 훗날을 승리를 기약하며 이곳을 포기하자. 후퇴의 책임추궁이 있으면 소장의 명령에 따랐다고 전해라.” 그때 우학중의 비감했던 심정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는 부하들의 퇴각을 명령한 뒤 바로 스스로의 몸에 총을 겨누어 자결함으로써 장렬히 산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홀홀 털고 떠날 줄 알았던 그 용기로 그는 전사가 되고 또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6.25란 전장의 공간이 그리 넓고 깊었음에도 우학중과 80 전사의 용맹이 위낙 도드라져 쉽게 가려줄 수 없었던 탓인지 아직 전쟁의 와중이었건만, 1951년 6.25사변 1주년을 맞아 우학중 소장을 비롯한 개성소년형무소 형무관들의 명예로운 희생을 기리고 넋을 추모하기 위한 추도식이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거행된 바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당시 법무부장관의 추도사 원문을 아래에 축약 기술합니다. ‘떠난 이는 말이 없지만 남겨진 이들에겐 할 말도 함께 남는다’는 말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어보며.

“...고 우학중 소장은 고립무원, 오직 민족적 의식과 형무정신을 발휘하여 형무소의 일각에라도 괴뢰군의 침입을 불허하고 고립분투 10여 시간, 그러나 부득이한 대세에 중과부족을 어찌하랴. 고 우학중 소장은 이미 각오한 바 있어 형무소 구내를 일순하고 왕성한 책임감과 형무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소지한 칼빈총으로 장렬한 자결을 하였다.

아! 장하고 귀중하도다. 애석함이 또한 크다. 그 절개와 최후의 일각까지 괴뢰의 침범을 불허하는 감투정신과 생명을 초개와 같이 던져 대한민국에 진충을 다한 것은 전 형무관의 귀감이 될 뿐 아니라 영구불멸 길이길이 빛날 것이며...3천만의 염원인 멸공 남북통일의 결의 자못 새로운 바 있습니다.

영령이시여 고이고이 명복하소서.

단기 4284년 6월 25일
법무부장관 조진만”

‘125% vs 47%’ —한일 수용률 격차의 결정적 차이는?



김동욱
교정본부 교정정보빅데이터팀 교정관

언론이 주목한 한국과 일본의 수용률 차이

얼마 전 조선일보(25. 3. 11.)에는 ‘교도소 수용률 한국 125%, 미국 86%, 일본 47%’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 기사에서는 세계 224개국의 교정통계를 수집한 데이터베이스 ‘월드 프리즌 브리프(이하 WPB)’를 근거로 들어, 최근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국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교정 시설 수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로 2023년 말 기준, 136.2%이고, 프랑스, 슬로베니아, 콜롬비아에 이어, 우리나라는 5위인 125.3%(2024년 말 기준)라고 보도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47.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2006년 말 일본 교정기관의 수용률이 102.4%(수용인원 81,255명)까지 치솟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를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데이터 기반의 예측과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교정정보빅데이터팀의 업무 담당자로서 급격한 수용률 감소의 배경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교정 정책에도 참고할 만한 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WPB의 통계는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러한 통계를 제시한 기관은 신뢰할 만한 곳일까? WPB(prisonstudies.org)는 전 세계 교정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런던대학교 버크벡 칼리지 산하의 범죄 및 사법 정책 연구소(Institute for Crime & Justice Policy Research, ICPR)가 운영한다. 여기의 운영진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공식자료를 매월 갱신하여 게시하고 있다. 이 중 Highest to Lowest-occupancy Level(수용밀도 순위)에서 제시한 209개국을 수용률 상위부터 내려가 보면 일본이 205위이고, 우리나라는 96위로 중위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공신력 있는 출처인 일본정부통계 e-stat 교정통계에서도 2023년 기준 일평균 수용인원 40,853명으로, 수용정원 85,029명의 48%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어, 위 통계의 정확성을 뒷받침한다.

엄격한 송치와 신중한 기소로부터 시작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낮은 수용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일본의 형사사법 절차와 정책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일본의 범죄혐의에 대한 송치단계에서는 미죄처분(微罪處分) 즉, 경미한 절도, 재물손괴, 폭행, 도로교통법, 풍속범죄 등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없이 자체 종결하고 있는데 여기에 속하는 범죄가 매년 5만 건에 이른다.¹⁾

또한, 일본은 검찰 기소단계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일본의 형사재판 무죄율은 2023년 기준 0.17%(일본 사법통계연보)로 매우 낮는데 이는 검찰이 유죄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만 엄격히 기소하는 보수적 사법관행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재판인원이 감소하면서 수용인원도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 밖에도 폭력이나 협박과 같이 명백하게 형사법상의 문제가 개입하지 않는 한 개인간의 채무관계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민사사건에 형사기관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민사의 형사불개입 원칙’도 교정시설의 수용률을 낮추는 효과로 작용한다.²⁾

일본의 범죄건수는 2023년 기준 총 703,335건으로, 이를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약 560건 수준이다(일본 법무성 범죄백서). 한편,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경우 1,520,200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3,121건에 이른다(통계청 e-나라

1) 일본 법무성 범죄백서(2024년판)의 2023년 미죄처분인원은 48,299명(전체 검거 대비 약 28%)

2)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진단과 대응방안」(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강석구 등 6명, 2023)

지표). 이 기준에 따르면 인구대비 범피발생률이 일본보다 약 6배가량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수용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노역장 유치인원에서 수용률의 격차는 더욱 커져

우리나라 노역장 유치자의 입소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과밀화와 교정업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³⁾ 2023년 말 기준으로 노역 종료자는 12,930명에 달하며, 이는 전 출소 인원의 26.6%이다.

이에 반해, 같은 해 일본에서 노역장에 유치 집행된 인원은 861명(일본 검찰 통계연보)이고, 노역 종료자는 386명으로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인다.

2023년 기준	노역장 유치집행	노역종료자	출소자 중 비율
우리나라	57,267명	12,930명	26.6%
일본	861명	386명	2.27%

이처럼 일본의 노역집행인원이 현저하게 적은 이유는 벌금집행제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일본은 벌금이 확정되면, 곧바로 벌금 납부를 독촉하고, 불응 시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또한, 기한 내에 벌금을 미납하면 검찰이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는 등 민사집행법상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실무적으로는 벌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 검찰청의 징수 담당자를 통해 이를 분납하거나 유예할 수도 있다. 이처럼, 단력적인 벌금집행으로 인해 실제 노역집행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현저하게 줄어든다.⁴⁾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송치와 기소건수가 적기 때문에 벌금에 이르는 사례도 그만큼 감소하는 데다, 사회·경제적 취약대상자는 벌금형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이 밖에 2018년 형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형의 일부집행유예’를 통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초범의 경우에는 일부 형기만 교정기관에 수용하고, 남은 기간은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하고 있다. 2023년도에만 743명이 이 제도를 통해 석방되었다.

3) 「교정시설 과밀수용방지를 위한 정책적·법적 대책」(신용해, 경인문화사, 2025)

4) <https://www.kensatsu.go.jp>(일본 검찰청 홈페이지 참조)



일본의 적극적인 가석방 정책도 한몫

일본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출구전략인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0년 49.1%이던 가석방자 비율은 코로나 시기인 2021년에 60%를 돌파한 후, 2023년에는 63.5%까지 기록하였다(일본 법무성 범죄백서, 가석방 출소자/형기종료자+가석방 출소자로 재합산한 수치임). 같은 기간 우리나라가 36%인 것과 대비된다.

이렇게 높은 가석방자 비율을 설명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 정부의 재범방지 대책에 가석방을 명시적인 수단으로 편입한 데에 있다. 일본은 2016년에 재범방지법을 제정하고 재범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가석방자는 재범역률이 낮다’는 통계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재범방지 대책안에 가석방 확대를 명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가석방이 출소자의 재범위험을 낮추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지속적인 확대를 견인했다.⁵⁾

두 번째, 낮은 사회적 저항감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가석방이 교정행정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되어 왔으며, 가석방 심사 전체가 비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공적 수용성(Public Acceptability)’에 있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가석방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표면화되지 않으면서 가석방제도의 확대를 촉진 시켰다.⁶⁾

5) 「Offender Rehabilitation Reform in Japan: Effective cooperation between professional and volunteer probation officers,」 (Satoshi Minura, 2018)

6) 「A place for public concerns in parole decision making in Japan」 (Saori Toda, 2024)

수용자와 함께한 시간, 삶을 비추는 빛으로

박수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서울지회 지회장



INTERVIEW

시간은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주어지지만, 그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삶은 서로 다른 무늬를 그리기 마련이다. 박수호 지회장(대한민국교정동우회 서울지회, 이하 서울지회)의 '지금'은 유난히 반짝이는 듯했다. 오랜 경험과 성찰이 쌓인 그의 시간은 '선명한' 궤적을 남겼고, 이는 현재 단단한 의지와 신념으로 그 마음의 길을 환히 비춰주고 있었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지금, 기쁨과 온기를 피우는 시간

하나의 삶은 그 사람의 '태도'를 흡수한다. 그리하여 청년의 때가 싱그러울 순 있어도 기쁨으로 빛나는 것은 그 싱그러움 젊음이 한참 지난 후 에나 가능해지는 일인지 모른다.

햇살 가득한 자택 안으로 앉을 자리를 내어주는 박 지회장의 모든 시간과 경험도 어느덧 부드럽고 온화하게 그 내면으로 스며들어, 한껏 빛을 내고 있었다. 양쪽으로 열린 문을 따라 드나드는 바람처럼, 그의 인상은 자유롭고 유연했다.

박 지회장은 연년생 두 딸의 성장한 가정에 든든한 '울타리'였다. 동시에 대한민국교정동우회 서울지회 활동을 비롯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노인회, 종친회 등 여러 공동체의 '섬김이'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그의 삶은 가족에게는 한결 같이 든든한 배경이었으며, 교정동우회 및 지역사회에서는 은은한 온기를 품은 리더로 기능하고 있었다.

“결혼해서 각자 집을 꾸리며 지내다가, 작은딸과 큰딸이 차례로 이 아파트에 모여들었죠. 각각 두 아이를 두어서, 저희 부부까지 모두 10명이나 되는 대식구가 됐습니다. 손주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각종 모임 활동까지 주도하다 보니 퇴직 후가 더 분주한 것 같네요.”

교정인의 나날, 성실과 성찰로 일군 삶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선물을 안겨주지 않는다.

사람과 사물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지키며, 슬한 문제와 갈등 앞에서 일관되게 성찰하고 반성해 왔을 때 단단하고 깊어진 삶은 비로소 재미와 의미를 선사한다.

박 지회장은 현재 선물 같은 시절을 향유하고 있다. 장성해 각자의 처소를 꾸렸던 딸들이 등지를 찾듯 다시 모여들면서, 전에 없던 즐거움을 느낀다. 평생 지켜 온 가치들이 알게 모르게 전해져 손주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그동안 쌓아 온 삶의 의미가 확장되고 깊어지는 듯도 하다.

박 지회장은 그 비밀을 교정직의 이력에서 찾았다. “1977년 6월 서울구치소에 임용, 2007년 6월 수원구치소에서 정년을 맞았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었다. 현장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사람들과의 교감, 법의 엄중함을 온전히 체감하며 쌓아 온 경험, 그리고 그 속에서 길러진 도덕적 성찰을 모두 내포하고 있었다. 즉 교정직이 그의 삶을 지탱해 온 단단한 뿌리이자 성장의 기록인 셈이다.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소박하게 살다가 교정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죄라고 해 봐야, 잠깐 비난하고 꾸짖는 ‘잘못’의 수준만 알다가 임용 후 보안과에 발령돼 처음 ‘행형’을 접했죠. 죄지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충격이었고, ‘저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다’는 생각에 낮설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물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의 무게 때문에 물러날 수 없었던 데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된 교정인으로서의 이력이 삶의 주요한 동력이 됐다고 박 지회장은 고백했다. 수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그들의 눈을 맞추고, 밥을 챙기고, 잠자리를 보살피며, 아프면 치료실에 데려다주고, 면회 및 재판을 위한 시간을 공유하며 긴장해야 했던 그 무수한 날들이, 사실은 개인적 삶에 좋은 재료였음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다.

“죄 지은 사람들을 교정·교화함으로써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것, 교도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직업이고 업무일 뿐이지만, 제게는 스스로를 관리하고 가꾸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수신제가(修身齊家)’라는 말도 있듯 누군가를 바로잡을 수 있으려면 나부터 반듯해야 하니까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라와 천하까지는 아니어도, 저 자신과 가족만큼은 평정하게 지켜 오지 않았나 싶어요.”

흔들림의 시간도 길이 된다

박 지회장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949년, 경기도 여주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8남매 중 아들로써 셋째였지만, 유난히 살가웠던 그의 아내는 맏며느리 격이었다. 말하자면 일찍부터 ‘부모를 모실’ 자격과 책임이 주어졌다는 의미다. 한편 전쟁의 여파에 따른 혼란과 유년의 가난을 꾸역꾸역 견뎌온 박 지회장은 차츰 다른 삶을 꿈꾸게 됐음을 털어냈다.

“딸을 흠강아지로 만들지 않으려면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을 쪼개 공부를 시작했죠. 교정공무원이 될 운명이었는지 시험 문제가 참 쉽게 느껴지더니,

나중에 성적순 발령이라는 걸 듣고 ‘상위권 합격’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했던 결단과, 자녀의 앞날을 두고 했던 낭만적인 계산은 교정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무너졌다고 한다. 수용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근무해야 하는 보안 업무, 낮과 밤의 경계가 없는 교대 근무, 수시로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들은 그가 교정직을 떠나야 할 이유가 됐다. 같은 이유로 하나둘 떠나는 동료들을 보며 이직의 정당성을 찾기도 했다. 하지만 출구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박 지회장은 고백했다.

“누우면 발이 벽에 닿을 정도의 작은 방을 얻어 지내고 있었어요. 일근과 야근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긴장과 피로가 몸에서 떨어질 줄 모르니 다른 준비를 할 여유가 없더라고요. 시골에 남겨 둔 아내와 딸을 하루빨리 데려와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으로 무력해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게 또 버틸 힘 아니었나 합니다.”

기록의 시간, 마음에 ‘울퉁음’ 새겨

교정 현장에서의 날들은 고단했지만, 박 지회장은 작은 일 하나도 허투루 대하지 않았다. 모든 기록이 손으로 작성되던 시절이었기에 정갈한 글씨로 중요한 문서들을 작성했는데, 매일 같이 차트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 내려간 보고서의 급기야 교도소를 넘어 법무부 장관에게 까지 전달됐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보안과에서 총무과로 발령이 났던 일, 꼼꼼한 기록과 깔끔한 정리로 중요한 문서 작업을 도맡으며 실력을 발휘했던 기억, 그 능력을 인정받아 법무부에서 근무했던 8년 간의 시간을 박 지회장은 차례로 들려줬다.

“아버지가 한학자셨던 덕에 한자를 읽고 쓰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던 때라 문서 하나를 완전히 읽으려면 한자를 알아야 했거든요. 글자 하나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다는 게 재능으로 평가되며 참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박 지회장은 교정직이 짧은 날의 자신을 많이 키워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법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다고.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의 경험 이 평생을 쓰고도 남을 연료처럼 자신을 올곧게 지켜줬다고 믿는다. 다만 ‘합격’을 전하며 봤던

어머니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 있는지, 그의 눈이 빨갭게 충혈됐다. “실망으로 굳어지던 어머니의 얼굴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하는 박 지회장은 목이 메는 듯하지만, 그 기억마저 그의 존재 어디쯤에서 반짝이고 있지는 않을까.

월남 참전용사인 박 지회장은 국가보훈 대상자이기도 하다. 제70회 현충일을 앞뒀던 지난 5월, 그의 모습이 환하게 빛났던 것은 어쩌면 서울구치소 정원에서 열릴 고(故) 우학중(6·25전쟁 당시 개성형무소장) 선배의 뜻을 기리는 마음 때문이었으리라. 한참 추모행사 준비 중이었던 그의 미소에는 긴 세월 품어온 교정인의 신념과 자부심이 단단히 자리하고 있었다.



순직 선배들의 뜻 되새기며... 교정본부, 충혼탑 참배 행사 거행



교정본부는 지난 6월 5일, 순직한 선배 교도관들의 고귀한 희생과 위훈을 추모하기 위한 충혼탑 참배 행사를 거행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숭고한 사명감을 가슴에 새기고,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글_서선미 사진_교정본부

경의·감사의 마음으로... 충혼탑에 모인 63인

교정본부는 지난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순직한 선배 교도관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그 뜻을 되새기기 위한 추모 행사를 진행했다.

서울남부교정시설 입구 순직교도관 충혼탑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홍연 교정정책단장을 비롯한 본부 과장 및 직원 24명, 최제영 서울지방교정청장, 박경선 서울남부구치소장, 정인식 서울남부교도소장 등 지방청 및 소속 직원 25명, 송영삼 교정동우회 회장과 사무총장 외 14명 등 총 63명이 참석해 순직교도관에 대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기렸다. 참석자들은 정복과 예장을 갖추어 예를 다했으며, 행사 요원들 역시 검은색 계열의 정장과 넥타이로 복장을 맞춰 엄숙한 분위기를 더했다.

충혼탑 참배로 시작된 행사는 환담과 기념촬영으로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순직한 선배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며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소명과 자긍심을 다시 한번 다졌다.

충혼탑, 숭고한 희생의 기록

교정본부는 2023년, 한국전쟁 당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교정공직자들의 고귀한 희생과 위훈을 기리기 위한 '6·25전쟁 전사 교정공직자 충혼탑' 건립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1월 기획을 시작으로, 2월에는 서울남부교정시설 입구를 건립 위치로 확정했으며, 4월에는 구로구로부터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갔다. 완공된 충혼탑은 같은 해



6월 5일 제막식을 통해 공개된 이래 순직 교정공직자들의 넋을 기리는 상징적 장소로 자리 잡았다.

교정본부는 매년 현충일이면 이곳에서 순직한 선배 교도관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거행한다. 높이 4m, 면적 28㎡ 규모의 충혼탑은 '열쇠'와 '칼' 등 교정을 상징하는 형태의 탑신으로 '바위처럼 굳고 단단한 교정 공직자'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기단에는 한국전쟁 당시 순직한 교정공직자 167명의 이름이 각인돼 있다. 또한, 충혼탑 뒤편 아트월 중앙에는 태극기와 무궁화를 새겨 넣어 호국과 나라사랑의 의미를 담았다. 아울러 그 양옆에 조형된 교정공직자의 모습이 감시대와 참호 속에서 교정시설을 방호하던 당시 교정공무원들의 숭고한 사명감을 생생히 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징적 공간에서 거행된 이번 행사는 교정공무원들에게 순직 선배들의 뜻을 되새기고, 교정의 사명감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한편,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 개성소년형무소 등 19개 기관에서 총 167명의 교도관이 순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제주 배기환 교감 대상… 교정공무원·교정위원 등 17명도 수상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해 온 교정공무원 및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포상·격려하는 '교정대상'이 올해로 43회를 맞았다. 교정대상은 교정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화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 1983년 제정됐다.

글_서선미 사진_교정본부

교정공무원·교정위원·군 교도관 18명에 시상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이 지난 5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성수 서울신문사 사장, 김우성 KBS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 총 1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대상 수상자인 제주교도소 배기환 교감은 부친의 투병과 사망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형자에게 상담과 장례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교정·교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소 한라산 유해조수 퇴치사업 등 지역사회 환경 보존 활동에도 적극 나서는 배 교감은 32년 9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한 베테랑으로, 오랜 기간 현장에서 보여준 헌신과 실천이 이번 수상의 배경이 됐다.

묵묵한 실천의 힘, 다양한 수상으로 빛나다

교정공무원 부문에서는 근정상에 경북북부제3교도소 최정중 교감, 경주교도소 조광래 교감이 선정됐다. 두 수상자는 탁월한 직무 수행과 모범적인 공직 자세로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성실상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김인한 교감, 천안교도소 권점희 간호주사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과 꾸준한 헌신으로 동료들의 귀감이 되어 왔다.

창의상은 서울구치소 백종호 교감, 광주교도소 최문주 교감이 수상했다. 두 수상자는 새로운 방식의 교정 프로그램 운영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교정행정에 신선한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의정부교도소 변호정 교위는 술선수범하는 자세로 수범상을,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인식의 교감은 수용자 교화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로 교화상을 수상했다.

교정위원 부문에서는 순천교도소 이동원 교정위원이 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동원 위원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500여 권의 우량도서를 기부하며 수용자의 정서 순화에 이바지해 왔다.

이 외에도 서울남부교도소 이춘화 교정위원, 경북북부제1교도소 박영자 교정위원, 대전교도소 강도묵 교정위원이 꾸준한 봉사 활동으로 봉사상을 수상했다. 대구교도소 김원찬 교정위원은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공동체 정신으로 박애상을, 의정부교도소 박정섭 교정위원은 나눔 실천의 모범으로 자비상을 받았다. 또한 안동교도소 임정혜 교정위원은 애정 어린 교화활동 공로로 자애상을, 군산교도소 홍용승 교정위원은 지속적인 활동과 노력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모범적 교정 사례로 '주거 지원' 주목

올해 교정대상 수상자 중에는 출소자의 사회 복귀 지원에 앞장선 사례도 눈에 띄었다.

국군교도소 이홍석 상사는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협력해 임대주택 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주거 지원 활동에 앞장서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은 출소자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재범 방지에 기여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으며 '교정 발전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예로 이어졌다.



깊게 뿌리 내린 아이들이 활짝 피는 세상을 꿈꾸다 수용자 자녀의 친구 '세움', 동행의 시간 기록

추운 계절의 나무는 온갖 바람과 폭우를 견디며 생명을 지탱한다. 비바람이 가혹해질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버틴다. 어쩌면 수용자 자녀들이 그렇다. 부모의 범죄로 인한 결핍과 사회적 편견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다 보면, 몸을 숨기듯 조용히 침잠한다. 이들의 '침잠'이야말로 단단한 '뿌리내림'이어야 한다. 이것이, (사)아동복지단체 세움이 지난 2015년 첫발을 댄 이유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수용자 재사회화의 첫 관문, '아이들'

1961년 제1차 형법 개정 이래 기존 '형무소'와 '형무관'이라는 용어는 이제 '교도소'와 '교도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는 교정시설의 역할이 과거의 '범죄자의 행위를 응징하는 것'에서 '범죄자의 반사회성을 교화·개선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음을 반영한 법적 근거이자,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복귀가 형벌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교정주의 원리에 대한 공식 천명이다. 따라서 직업훈련과·사회복귀과의 우산 아래 시행되는 모든 교정 기관의 직업훈련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수용자의 교정교화',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수용자들은 자립 능력을 키우고,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습득한 것들을 바탕으로 사회에 순조롭게 정착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모가 수감 생활하는 동안 감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자녀들은 그 공백을 메우기 힘들어하며, 부모가 돌아온 이후에는 가정 내에서의 정서적 연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결국 수용자 재사회화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먼저 그 자녀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과 사회적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복귀'라는 말이 단순히 물리적 귀환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아울러 교정 기관의 노력과 교육을 가정과 사회로 온전히 잇기 위해서라도 단절된 시간에 대한 이해와

치유는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법과 현실 사이 갇힌 수용자 자녀, 그들의 비밀 언덕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¹⁾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자기 책임의 원리'²⁾에 기반하며, 이에 반하는 제제는 그 자체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

그러나 법의 이러한 선언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자녀들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수용자의 자녀들이 겪는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생체기로 잔존하고 있으며, 부모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 결핍, 사회적 낙인, 경제적 어려움마저 이들의 성장 과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세움의 시선은 바로 이 지점을 향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분명 '연좌제 금지'를 선언하고 있지만, 그 그늘을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누군가의 현실, 즉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이 초래하지 않은 혐오를 감내하며 소리 없이 신음하는 아이들이다.

세움은 수용자 자녀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도적 보호나 사회적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가는 일을 삶의 전부로 여기지는 않게, 단절이 아닌 '연결'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도

1) 연좌제 금지에 관한 조항.

2)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헌법재판소 2004. 6. 24.자 2002헌가27 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4.자 2007헌바101 결정.



‘보호’나 ‘도움’이 아닌 ‘동행’의 관점으로 다가가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 아이들이 실존적인 당당함으로 일어서고, 자신을 향한 세상의 편견을 당당히 넘어 설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한다. 부모의 부재가 남긴 정서적 결핍을 메우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도록 지지하며, 사회적 낙인이 더 이상 그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교정의 경계 넘어, 확장된 시선으로

교정 기관들은 주로 수용자 중심의 교정·교화 활동 및 상담을 진행하며 수용시설 너머에 있는 미래의 삶까지를 응원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용자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부수적인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에 세움은 접근 방식을 다소 변경, 수용자를 통해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아이들의 삶을 중심에 두고 그들의 목소리와 필요에 주목하고자 했다. 교정 기관의 중심이 ‘수용자’라면, 세움의 중심은 수용자의 자녀인 ‘아동’인 것이다. 결국 세움의 활동은 ‘가족 지원’임이 분명하지만, 핵심은 “수용자 자녀의 권리와 성장을 위한 실질적 개입”이다. 제한된 인원과 예산으로 출발한 세움은 어느덧



11살이 됐다. 설립 초기 법무부 교정본부의 협조 아래 전국 53개 교도소 약 5만 7,000명의 수용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해 가족 상황을 파악했으며, 10주년이던 지난해에는 브라이언임팩트 재단의 후원으로 세움만의 독립적인 공간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식화된 수용자 자녀의 정확한 현황은 세움의 체계적인 움직임을 재촉했고, 이에 따라 세움은 2024년 기준 1200여 명의 수용자 자녀를 지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치는 세움에게 단순한 통계를 넘어,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목소리다. 그것은 수용자 자녀들을 향한 “당당히 일어서서, 당당히 넘어서며, 당당히 올라서라”는 수많은 응원의 외침인 동시에, 언제나 곁에 있겠다는 세움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약속인 것이다.

편견·낙인 딛고 당당히 일어설 때까지

세움은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국내 최초로 수용자 자녀 인권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아이들의 권리를 사회가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그 배턴을 이어받은 법무부가 직접 ‘보람e 시스템’을 통해 매년 수용자 자녀의 현황을 파악해

주고 있다는 것이 이경림 대표의 설명이다. 아울러 여주교도소에 국내 최초의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을 조성, 철창을 사이에 두고 아쉽게 진행되던 면회의 순간을 함께 식사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따뜻한 회복의 시·공간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는 교정본부와 교도소 공무원들의 꾸준한 관심과 협력이 있었다”면서 “설립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용자 자녀들이 사회의 편견을 넘어 당당히 자라날 수 있도록 조용히 곁을 지켜왔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부터 그토록 탄탄하고 치밀하게 네트워킹되었기에,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했다”며 “이러한 변화가 수용자 자녀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양분이 될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뿌리는 먼저 땅을 단단히 붙들어 자리를 잡고, 생명을 위한 자양분을 끌어올린다. 수용자 자녀들 또한

결핍과 편견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움은 기꺼이 그 뿌리를 감싸 안는 따뜻한 땅이 되고자 한다. 그리하여 불확실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언젠가 수용자 자녀들이 본연의 이름으로 피어나, 스스로를 곧추 세우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길 세움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mini interview



이경림 대표

세움은 수용자 자녀를 ‘아동’으로만 대하고 있어요. 간혹 부모님과 연결되는 경우에도 수용자 아닌 누구의 어머니·아버지로 다가갈 뿐이죠. 오직 아이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움의 활동은 단순한 보호나 시혜가 아닌, 아이들이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북돋는 일이라 해야 할 것 같아요. 매주 세움에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편히 쉴 공간을 제공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시간이지만, 그 아이들에겐 자그마한 모습으로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고 경험이기도 하니까요. 전국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교도소 내 양육유아)부터 대학생이 된 청년까지 월 평균 450여 명의 다양한 연령층의 수용자 자녀와 함께하고 있어요.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현장의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돕는 체계가 점점 견고해지고 있으니, 언젠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주체가 될 아이들이죠. 그 삶을 응원하며 세움도 조용히, 그러나 굳건하게 걸어가고자 합니다.

아픔의 자리에 피어난 '뜻', 묵묵한 교정의 마음을 잇다

군산교도소

군산은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지역이다. 근대화에 앞장섰지만, 일제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기에 기억은 영광보다 상처에 가깝다. 그럼에도 군산은 그 아픈 흔적을 지우지 않고 '곱씹고 소화하며 잇는'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낸다. 군산교도소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고요하되 단단한 걸음으로 교정의 뜻을 지켜가고 있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역사 위에 세운 교정의 마음

“여럿인 가운데 될수록 하나인 것을 찾아보자는 마음, 변하는 가운데 될수록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자는 마음, 정신이 어지러운 가운데 무슨 차례를 찾아보자는 마음, 하나를 찾아보자는 마음, 그것이 뜻이라는 것이다. … 그것이 역사를 읽이요, 역사를 봄이다.”¹⁾

이 ‘뜻’을 좇는 마음이야말로, 군산교도소라는 공간을 관통해 흐르는 정신이 아닐까. 정문 안으로 세워진 개청 100주년 기념비를 마주하니, 세월의 흔적은 물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짐까지도 고요히 다가오는 듯했다.

군산교도소는 1910년 7월 1일, 광주감옥 군산분감으로 개칭하며 형 집행 사무를 시작했다. 1920년대부터 꾸준히 확장된 시설은 1930년대 중반 본격적인 행형 기능을 갖추게 됐고, 1946년 3월 28일에는 군산형무소로 승격되어 15년간 운영됐다. 이후 현재

‘군산교도소’라는 명칭은 1988년 11월 27일 부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 공간이 품은 시간의 무게는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지켜져 온 가치들을 다시금 들여다보게 한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군산교도소는 단지 법 집행의 현장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시대와 제도가 바뀌는 흐름 속에서도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이라는 교정지표를 붙잡고, 끊임없이 그 방향을 되물으며 실천해 왔다.

특히 군산교도소는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의병들이 항거하다 고초를 겪었던 역사적 현장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그 격동의 시간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지켜낸 뜻과 희생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전한다. 그리고 이는 군산교도소의 정체성과 직원들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깊이 뿌리내려, 현재의 교정 철학과 실천으로 발현되고 있다.

담당 안팎의 인권과 치유를 품다

월명산 중턱의 나무 울타리 감옥 시절부터 현재 옥구읍 옥정리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모해 온 군산교도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성의 공간이기도 하다. 본연의 역할인 형집행뿐 아니라, ‘담당 안팎’을 잇는 이웃으로서의 존재감 역시 단단하고 뚜렷하다. 옥정골 보라미봉사단 활동, 무의탁 노인 지원, 인근 초등학교 장학금 전달, 불우수용자 돕기 콘서트 등 다양한 실천은 교정시설이 단지 ‘수용’의 공간을 넘어 ‘동행’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군산교도소의 이러한 철학은 교정행정의 방향뿐 아니라 수용 환경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도 오롯이 반영돼 있다. 일부 수용시설에는 전자영상상비를 설치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했고, 대체복무팀 운영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정책에 적극 참여하며 인권과 제도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13년 11월 신설된 심리치료과를 통해서도 성폭력 사범 수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심리치료를 제공한다. 심리치료과는 전국적으로 소수 시설에만 설치되어 있는 전문부서로 심리검사실·교육실·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임상심리사 3명을 포함한 총 8명의 전담 교도관이 수용자의 재범 유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한다.

재범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도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처 능력과 자제력을 기를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는 안정적인 수용 생활 이상의, 출소 이후까지 내다본 예방적 조치이자 교정의 실질적 성과를 위한 기반이기도 하다. 즉 수용자 개인의 내면 회복과 재범 방지를 함께 지향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사회복귀의 길을 모색하는 교정의 뜻이라 할 수 있다.

군산교도소는 또한 수용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3년 신축된 ‘장애인 재활직업훈련관’을

1)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한길사, p. 45~46.



통해 전국 유일의 장애인 수용자 대상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빵·한식조리, 귀금속 및 보석가공 기능사 등 총 4개 분야에서 이뤄지는 해당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능 습득을 넘어 장애인 수용자의 자립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교정의 깊은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곧 장애라는 이중의 장벽을 지닌 수용자에게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출구를 제공하는 또 다른 교정의 실천인 것이다.

교정 현장에 피운 유대 문화 돋보여

군산교도소에서는 정진우 소장을 중심으로 278명의 전 직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교정 본연의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원활한 사회복귀는 물론, 교정시설 내 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

직원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도 눈에 띈다. 실제로 서로를 형·동생으로 부르며 기쁜 일엔 함께 웃고 힘든 일은 함께 건디는 조직문화는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의식과 사람 중심의 가치를 대변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근무 중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협업의 효율은 물론 현장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교도소리’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처럼 따뜻하고 인간적인 팀워크가 자리 잡았다는 점은 매우 특별하다. 군산교도소는 여기에 더해, 심리치유실과 1인 1실 비상대기 숙소를 마련하는 등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직원 개개인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이자, 교정행정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토대이기도 하다.



교정, 사회와 함께 나아가는 길

군산교도소는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어우러지기 위한 노력에도 꾸준히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교정위원과 직원들이 지역 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환경정화 활동이나 지역 행사 지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공공기관’ 그 이상의 역할로 나타난다. 즉 단순한 외연 확장을 넘어서, 교정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지속적 실천인 것이다. 이러한 행보는 교정과 사회의 접점을 넓히는 다양한 실천으로 확대되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가석방 예정 수용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보라미봉사단

활동은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확보함으로써 미리 회복의 시간을 가져볼 것을 제안한다. 이는 교화의 의미를 사회적 신뢰의 회복으로 전환해 보는 실험인 한편, 지역주민에게는 수용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이처럼 군산교도소는 교정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이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생을 모색하며 ‘사람과 사회를 이어주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 100년이라는 시간 위에 쌓아 올린 군산교도소의 이 같은 가치 지향은, 교정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좌표임이 분명하다.

교정 너머의 ‘삶’을 준비하는, 기술 넘어 ‘일상’으로의 안내자

군산교도소 직업훈련과

‘교정’의 진정한 의미가 사람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면, 교정 기관의 ‘임무완료’는 출소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일상’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에 군산교도소 직업훈련과는 기술 교육을 통해 그 복귀의 길을 ‘정착’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특히 전국 교정시설의 장애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재활훈련과정을 운영하는데, 이 과정에서 군산교도소의 장애인 수용자들은 기술이 아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 나간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재활직업훈련관: 장애인 수용자의 삶을 짓는 ‘교실’

군산교도소는 지난 2003년, 국내 최초로 장애인 수용자만을 위한 전문 직업 훈련시설인 ‘재활직업훈련관’을 설치했다. 직업훈련과가 총괄하는 이곳은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공간이 아닌, 장애를 가진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도 존엄한 삶을 유지하며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다.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거실과 엘리베이터, 전용 욕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생활공간은 물론, 제과제빵·한식조리·보석가공·귀금속공예 등 4개 직종의 실습장이 들어서 있다.



재활직업훈련관에서는 전국에서 선발된 경증 장애인 수행자들이 6개월에서 1년간 훈련을 받으며, 단순 기능 습득을 넘어 스스로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해 간다. 보석가공·제빵·한식조리 분야에서는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가 매년 꾸준히 배출되고 있는데, 지난 2022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는 금메달 수상자가 나오기도 했다. 이로써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이 단지 ‘시간 보내기’가 아닌, 현실적인 사회복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톡톡히 보여줬다.

장애인 수용자들은 이 공간에서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치 있다”는 자존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익힌다. 군산교도소 직업훈련과는 이처럼 출소 후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도구’와 ‘의지’를 동시에 길러주는 재활 플랫폼으로 기능하면서 교정의 공공성과 인간 존엄 실현이라는 두 축을 조화롭게 구현해 내고 있다.

변화의 위밍업 존: 출소 후의 ‘스타팅 피스틀’

물론 군산교도소는 장애인 수용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따라서 군산교도소 직업훈련과에서는 일반 수용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역시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이에 직원들은 모든 수행자의 ‘출소 이후’를 함께 고민한다.

현재 운영 중인 훈련과정은 자동차 정비, 건축 목공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기술 중심의 실습 교육이다. 기술 습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출소 이후 자립할 수 있는 생계 기반 마련이라는 현실적 필요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교정은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 또한 각 훈련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특히 중장비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수용자들을 위해 군산교도소는 지난 2023년부터 지역 내 중장비학원과 손을 잡고 훈련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는 교도소 안에서 쌓은 기초 훈련이 지역 전문 교육기관의 실무 중심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다. 수용자 입장에서 교육시설 내 교육을 통해 쌓은 역량을 실제 노동시장에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현실적 진로 설계가 가능해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군산교도소 직업훈련과는 그간 출소를 앞둔 수용자들이 사회와의 접점을 원활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반기마다 열리는 ‘취업지원 협의회’에서는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해 수용자 개개인의 적성과 이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 취업 정보와 조언을 제공한다. 이 같은 실천은 단순히 형 집행 종료만으로 교정의 책임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군산교도소의 직업훈련은 단순한 직무 교육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에 가깝다.

이렇듯 군산교도소의 직업훈련과는 교도소를 나선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정의 진정한 의미를 삶의 전환점으로 구현하고 있다. 교정은 ‘끝’이 아니라, 그 이후를 위한 든든한 ‘시작’이라는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이음의 통로: 사회로 향하는 ‘출구’

군산교도소 직업훈련과에서는 과장을 포함한 총 14명의 직원이 수용자들의 내일을 준비한다. 이들의 회계, 서무, 작업장 운영, 취업 연계, 훈련 지도 등 각기 다른 역할은 모두 수용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돼 있다.

각 직종별 실습과 이론 교육을 담당하는 직업훈련 교사들은 때로 복수의 직종을 아우르며, 교육의 깊이와 폭을 함께 책임진다. 기능사 자격증 취득은 물론,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까지 이끄는 이들의 지도는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자존감 회복과 정서적 돌봄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따뜻한 동행’이다.

운영 전반을 뒷받침하는 회계·서무 담당자들은 예산 편성, 문서 관리, 물품 조달 등 행정의 실무를 세심하게 챙기며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이끈다. 민간

mini interview

김창환 과장



군산교도소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재활직업훈련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다양한 직종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립의 기반을 다져가는 모습을 볼 때면 직업훈련과 과장으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봉제공장도 수용자와 직원이 협업해 매년 뛰어난 경영 성과를 내는 핵심 작업장 중 하나죠. 구제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힘을 모은 덕분에 매년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업무의 강도는 높지만, 그래서 더욱 ‘출근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인 듯합니다.

업체와 협력하는 위탁작업장 담당자들은 수행자의 외부 작업 참여에 따른 출퇴근 관리, 보안 절차까지 철저하게 수행하며, ‘기술’과 ‘안전’이라는 교정 직업훈련의 두 축을 견고히 지탱한다. 외부 인력과의 협업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교정시설의 특수성과 훈련 목적을 이해시키며 현실적인 교육 여건을 만들어가는 일 역시 이들의 몫이다.

아울러, 수용자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 중이다. 이력서 작성과 모의 면접, 자기소개서 클리닉은 물론, 실제 취업까지 연결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 매월 진행되고 있다. 법무보호복지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기업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단기 취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 정착’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말하자면 군산교도소 직업훈련과는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니다. 이곳의 구성원들은 교육자이자 조력자이며, 때로는 수용자의 인생 방향키를 함께 쥐는 ‘인생 코디네이터’이기도 하다. 기술을 전하는 손끝, 실습장을 정비하는 발걸음, 출소 이후를 그려보는 대화 하나하나에 이들의 사명감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새겨져 있다.



홋카이도 개척기 —— 일본 감옥의 특성과 수용자 노동의 함의



김형주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교수

목차

- I. 서론
- II. 동아시아의 근대화와 감옥
- III. 일본의 행형개혁과 홋카이도 개척
- IV. 집치감과 아바시리감옥의 역사와 구조
- V. 수용자의 노동과 성과
- VI.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 근대 초기 감옥의 체계와 수용자 노동의 특성과 함의를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메이지 유신 이후 홋카이도 개척기 집치감과 아바시리감옥의 역사와 구조, 수용자 노동의 내용과 방식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연구는 홋카이도 개척과 수용자의 노동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고, 현지 조사를 수행하여 감옥 공간과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치안 유지와 자원 확보, 국방 강화를 위해 행형제도를 개혁하고 수용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는 사회에서 격리되어 제거될 존재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봉사할 유용한 노동력이었다. 그것의 첫 출발지는 홋카이도였다.

북방의 척박한 지역이었던 홋카이도는 수용자의 노동으로 빠르게 개발되어, 이주민이 유입되고 국방까지 안정화할 수 있었다. 이때의 노동은 현대의 그것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노동은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목적보다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위해 수행되었다. 노동 환경과 방식은 매우 가혹하여 많은 수용자가 부상하거나 사망했다. 그렇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지역은 활성화되었다. 이주민이 빠르게 유입되고, 경제가 발전했으며, 감옥 관련 시설과 이야기는 관광 자원화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다시 한 번 행형제도가 국가와 지역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홋카이도 개척기 일본의 경험은 행형의 발전을 모색하는데 유의미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주제어 : 일본, 홋카이도, 아바시리, 감옥, 수용자



I. 서론

동아시아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경험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행형제도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일본의 행형방식이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만주, 한국, 대만에 이식되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도와 기관이 생겨났다. 그중 하나가 감옥으로, 감옥은 범죄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自由刑)을 집행하고, 교정·교화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 기관이다. 이전까지 동아시아에서 전 근대적 ‘감옥’은 고문을 하거나 처형을 하는 등, 신체형을 집행하기 위한 대기 장소로 활용되었을 뿐, 그 자체가 형벌 기능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의 식민지배 이래로 동아시아 각국에서 근대적 형태의 감옥이 등장했고, 일반화되었다.¹⁾ 이는 단순히 감옥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의 구조와 체계까지 일본의 그것과 유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경성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한 외국인인은 경성감옥을 일본의 감옥으로 인식했다. 왜냐하면 경성감옥에서는 일본인 간수가 일본어를 사용하며 일하고 있었으며, 식단과 생활방식까지 모두 일본식이었기 때문이다(Mullins, E. L. C., 1945). 말하자면 일본의 근대 감옥이 거의 그대로 한국에 이식되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근대적 형태의 감옥을 확립했을까? 그것의 특성은 무엇이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것이 이 연구의 첫 번째 문제의식이다.

일본의 근대화는 1868년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 가속화되었는데, 행형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본에서 근대화는 곧 서구화를 의미했는데, 메이지 유신 이후로 서구 세계의 철학과 사상, 물질적 산물이 일본으로 빠르게 흘러들어왔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일본의 감옥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서구화 궤탄을 따르게 되었다(박훈, 2014; Yanagimoto, M., 1970: 209). 일본에서는 1872년 감옥칙이 고시된 이래로, ‘유기징역’을 기초로 한 징역법이 실시되었고, 근대적 형태의 감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이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일종의 실험실로 삼은 무대가 홋카이도(北海道)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홋카이도의 실험을 토대로 일본은 동아시아로 무대를 넓혔다. 메이지 유신 이후 정권을 잡은 신정부는 국방을 강화하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변경에 주목했다. 홋카이도는 아이누가 거주하는 춥고 척박한

1) 일본과 한국 등에서는 교도소의 명칭이 옥(獄) 또는 감옥(監獄), 형무소(刑務所)라는 이름으로 변화해 왔다(유병철, 2012: 231). 영어로도 교정을 강조하는 correctional institution, 감금을 강조하는 jail이나 prison, 감화원으로 번역되는 penitentiary 등이 있다(최정기, 2003: 185). 다만 이 연구는 현재의 교도소가 아닌 일본 근대 초기 감옥의 사례를 다루고 있고, 인용하는 자료를 역시 ‘감옥’으로 표기되어서 ‘교도소’ 대신 ‘감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북쪽의 땅이었으나, 점차 탄광 개발, 도로와 철도 건설, 새로운 농법을 통한 경지개발이 시도되는 근대화의 거대한 실험실이 되었다. 그리고 이 실험은 행형제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시게마츠 카즈요시(重松 一義)가 “일본의 근대화에 있어서 변경 홋카이도의 존재와 그 개척에 의해서 얻은 새로운 체험과 지식의 의의는 실로 크다. 이는 행형의 역사를 말해 주는 것이다(重松 一義, 2004: 22)”라고 지적한 것처럼 행형제도는 일본의 근대화와 홋카이도 개척의 중요한 토대였다. 일본의 신정부는 홋카이도에 감옥을 만들고, 범죄자를 수용하여, 이들의 노동력을 통해 변경의 척박한 토지를 개발했다. 이때 수용자는 개발의 핵심적인 자원이었다. 수많은 수용자가 개발에 동원되었고, 단시간에 목표를 달성했다. 그렇다면 수용자는 어떤 조건에서 어떤 종류의 노동을 했을까? 그리고 그것의 특성과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이 이 연구의 두 번째 문제의식이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일본의 근대 초기 수용자 노동의 함의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본에서 근대 감옥이 확립된 과정과 그것의 특성을 홋카이도 개척 시기 집치감과 아바시리(網走)감옥의 사례분석을 통해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감옥의 공간적 구조와 배치, 규율과 운영방식, 수용자의 노동을 통해 일본이 행형정책에서 무엇을 가장 중시했고, 무엇을 추구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수용자의 노동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분석한다. 이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근대화와 행형제도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홋카이도 개척의 역사에서 행형제도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것의 체계와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홋카이도 집치감의 역사와 구조는 어떠한가? 구체적으로 아바시리감옥의 운영 목표와 방식, 공간과 기능은 무엇인가? 셋째, 이곳에서 수용자는 어떻게 생활하고 노동했는가? 수용자 노동의 내용과 방식, 환경은 어떠한가? 그것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II. 동아시아의 근대화와 감옥

감옥의 발전을 근대화의 맥락에서 접근하는 연구는 드물다. 특히 동아시아의 근대화와 행형제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근대의 감옥이 어떻게 형성, 발전되어 왔는가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근대 감옥의 사회적 작용을 사회통제론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연구는 존재한다. 이 연구는 근대 감옥의 개념적 특성을 자유형의 집행시설, 노동의 강제적 부과, 교화개선의 목표, 총체적 규율과 통제의 장으로 일단 설정한 다음, 이러한 의미에서의 감옥이 근대 서구사회에서 어떻게 형성, 발전해 왔는가를 파악하고, 사회 통제적 함의를 밝힌다(한인섭, 1989).

이 연구는 감옥의 역사를 해당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요구에 비추어 분석하면서 감옥이 어떤 맥락에서 설립, 발전, 변화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연구의 대상을 영국과 미국 등 서구의 사례로 한정하고, 정치·경제적 맥락 이외에 지역적·문화적 차원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으로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에서 감옥의 형성과 발전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는 공통적으로 일본, 대만, 한국, 만주의 사법체계와 행형제도를 근대화 과정에서 접근하지만, 각각의 연구는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특히 일본의 근대 감옥 연구는 메이지 시대부터 19세기 초까지(1968-1912) 감옥에서 종교의 위치를 분석하고, 한국의 경성감옥을 통해 일본의 근대 감옥을 묘사하거나, 1945년부터 55년까지 스가모(巣鴨拘置所) 감옥의 수감자의 감옥 생활을 분석한다(Lyons, A. J., 2017; Mullins, E. L. C., 1945; Powell, L., & Du, C., 2015). 특히 보츠만(Botsman)의 연구는 일본 행형제도의 역사와 변천 과정, 감옥의 설립과정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Botsman, D. V., 2013), 메이지 유신 전후로 행형개혁이 새로운 사회 질서를 수립하고, 징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개혁의 배경과 목표를 밝히고 있어 의미가 있다.

또한, 대만의 근대 감옥에 대한 연구는 식민지 대만의 사법제도의 형성과정과 일본의 식민지로서의 확산과정을 1898년과 1899년의 입법조치와 사업기관의 구성, 재판법규를 통해 살펴보거나, 대만의 타이호쿠(台北) 감옥을 일제의 식민지 정책(도시화, 문명화) 맥락에서 분석한다(문준영, 2004; Huang, S. M., & Lee, H. K., 2019). 한편으로 한국의 근대 감옥 연구는 조선 후기의 중세적 감옥행정과 죄수에 대한 처우가 갑오-광무개혁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파악하고, 근대 감옥이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 도입되고 제도화되면서 나타난 각각의 특징을 규명하며,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감옥 내 통제 메커니즘을 밝히고 있다(원재연, 2019; 이종민, 1998; 1999a; 1999b; 홍문기, 2019; Kang, J. W., 2016).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각국 감옥의 개혁이 일본의 주도 아래 본격화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의 감옥에 대해서는 응보주의 사상에 기반한 원형옥(圓形獄)의 형태가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며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행형제도를 비롯한 일본의 근대적 제도가 그대로 ‘이식’되었다고 설명한다. 시설을 칭하는 명칭 역시 ‘전옥서(典獄署)’와 ‘옥(獄)’에서 ‘형무소(刑務所)’로 변화하였다. 즉, 형의 집행을 기다리는 단순 대기 시설로서의 옥(獄)이 근대적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한 장소로 변화한 것이다(김수빈, 2020: 53).

마지막으로 일본, 만주, 한국, 대만의 근대 감옥을 비교하는 연구가 있는데, 각 감옥의 위치와 자연환경, 역사적 배경, 연혁, 특성, 관리체계와 형벌을 서술하거나,

일본 제국의 모범(本보기) 감옥(도쿄, 타이베이, 경성감옥)을 서구열강과의 역학관계, 식민화 시기, 민족주의와 사회운동의 강도와 지속성 등의 변수를 통해 비교 분석하고 있다(이종민, 2016; 周愛民, 2016).

기존 연구는 일본과 식민지의 감옥을 근대화와 식민화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옥의 건축과 체계, 그리고 죄수의 삶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식민지 감옥에 관심을 두면서도 일본 감옥의 근대화 과정 자체에는 관심을 소홀히 하거나, 특히 수용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 또한, 감옥의 구조와 체계를 분석하고 있지만, (이종민, Kang, J. W의 연구를 제외하고) 의미를 파악하기보다 단순히 특성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본 근대 감옥의 형성과정에서 파생된 담론과 제도적 특성, 감옥 내부의 운영체계, 수용자 노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것의 특성과 의미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현지 조사를 병행하여 일본 근대 감옥의 구조와 체계, 그리고 수용자의 노동에 접근했다. 문헌 자료는 주로 도서와 논문, 수용자의 수기, 감옥 관련 소책자와 홍보물이다. 특히 홋카이도 개척의 역사와 행형제도, 아바시리감옥의 역사에 관한 도서, 수용자의 수기와 홍보물 등은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는 일본 감옥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일본 근대 감옥의 형성배경을 검토하고, 수기, 사진, 영상 자료를 통해 감옥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했다. 예를 들어 연구자는 현지 조사를 통해 33편의 영상 자료 목록을 확보하였는데, 이 중 일부는 온라인에서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이 영상들은 일본의 근대 초기 감옥의 공간과 수용자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근대 감옥의 역사를 이해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수행했다. 일본의 근대 초기 감옥의 형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거의 없다. 미야기 감옥은 1879년 벨기에의 루벤 감옥을 모델로 메이지 유신 이후 최초로 건축되었지만, 원형을 찾아볼 수 없다. 반면에 오사카의 (구) 나라감옥(호시노야감옥)은 메이지 정부가 국제적 기준에 맞게 설계한 5대 감옥(지바, 가나자와, 나라, 나가사키, 가고시마)²⁾ 중 하나로 1908년에 완공되었고, 지금도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2026년 봄 개관을 목표로 특급호텔과 박물관으로 개조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다행히, 아바시리감옥이 박물관 형태로 원형을 보존하고 있어 근대 초기 감옥의 공간과 홋카이도 개척기 수용자 노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지 조사는 2023년 2월 홋카이도대학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수행하였고, 아바시리감옥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을 견학하고 사진 자료와 문헌자료를 수집하였다.

2) <https://former-nara-prison.com/kr/architecture/>(검색일: 2024.11.04.).

특히, 아바시리감옥 박물관은 “재단법인 아바시리감옥 보존 재단의 운영에 따라, 아바시리감옥의 옛 건축물을 이전·복원하고, 아바시리감옥의 행형 자료를 수집·전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쇼와 58년(1983년) 7월 6일에 개관”하였다(重松一義, 2002: 155). 박물관은 구 아바시리 감옥의 25개 건물을 그대로 이전하여 원형을 보존하고 있어 이를 통해 감옥의 공간과 구조,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전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역사적 기록, 사진 자료 등을 통해 수용자의 노동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III. 일본의 행형개혁과 홋카이도 개척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서양의 모델을 따라 서구화의 길로 들어섰다. 사쓰마번(薩摩藩)과 조슈번(長州藩)은 1868년 동맹을 통해 막부(幕府)를 무너뜨리고 신정부를 세웠다. 신정부는 판적봉환(版籍奉還)을 통해 영주의 토지와 주민을 신정부로 인입시켰고, 폐번치현(廢藩置縣)을 통해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하여 지방의 행정을 신정부의 통제 아래 두었다. 사실상 국가체제가 다이묘(영주)들이 지배했던 봉건제에서 중앙집권적인 국민국가의 형태로 전환된 것이다. 이때 261개의 번이 1개의 개척사, 3개의 부, 302개의 현으로 개편되었는데, 여기에서 1개 개척사가 오늘날의 홋카이도이다. 홋카이도에는 1869년(메이지 2년) 7월 개척사가 처음 파견되면서 일본의 지방 행정에 본격적으로 편입되었다.³⁾ 홋카이도가 부나 현이 아니라 개척사로 지정된 것은 이 지역이 18세기 말까지 막부의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오늘날의 간사이(교토중심)와 간토(도쿄중심) 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 북쪽으로 갈수록 지리와 기후가 척박하여 사람들이 정착하기 어려웠다. 다만 홋카이도의 최남단 하코다테 지역을 중심으로 마쓰마에 가문이 1604년부터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번의 주인으로 인정받아 일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들어선 신정부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면서도 부국강병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었다. 당시 러시아는 북동항을 확보하여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하 정책을 취하고 있었고, 자주 일본의 해안에 출몰하여 위협을 가했다. 신정부는 러시아의 남하·흑선 출몰에 대해 북쪽 출입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워 홋카이도를 지키다는 ‘북문쇄쟁론(北門鎖鑰論)’을 제기하고, 홋카이도 개척을 시작했다(重松一義, 2002: 14). 이러한 목적으로 1881년에 감옥칙을 개정하여 홋카이도에 도형류형징역형(徒刑

3) 당시 홋카이도 개척사는 다른 형부성·병부성 등과 동격인 성으로 개척사 청사는 민부성 내에 있었고, 홋카이도는 1869년 가을부터 하코다테출장소에서 사무를 취급했다(重松一義, 2004: 7).

流刑懲役刑) 12년 이상인 자를 구금하는 집치감(集治監)을 설치하고 수용자의 노동력을 통해 홋카이도를 개척하고 방어하는 정책을 취했다(문명재, 2022: 488).

행형개혁의 추진은 단순히 국방경비와 자원 확보 때문에 시작된 것만은 아니었다. 사실 메이지 지도자들은 정권을 잡자마자 행형제도를 개혁하기 시작했다. 치안을 유지하고 국가를 통치해야 했기 때문이다. “제국 통치의 회복”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직접 통제하는 지역에서 사용할 새로운 임시 형벌 규정(kari keiritsu)을 편찬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1868년 12월, 그들의 권위에 대한 마지막 대규모 군사 저항이 진압된 후, 새로운 정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궁정 귀족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 1825-83)는 형벌 개혁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왕위에 제출했다. 그것은 “제국 통치의 회복과 관련하여 시행될 수백 가지 개혁 중에서 형벌 법률은 대중의 생사에 관한 문제이므로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십자가형이나 화형은 완전히 폐지되었고, 모든 형태의 추방은 ‘형벌 노역(totei)’로 대체되었으며, 유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북쪽의 섬인 에조치(나중에 홋카이도로 개명)로 보내졌다(Botsman, D. V, 2013: 141).

구체적으로 신정부는 1868년(메이지 원년) 가형률(假刑律), 1870년 12월 신율강령(新律綱領)을 반포했다. 가형률과 신율강령은 명청률(明清律)을 기초로 마련된 것으로서, 가형률에서는 태(笞)·도(徒)·유(流)·사(死)의 총 4종, 그리고 신율강령에서는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의 5종의 형을 두었다. 이를 크게 나누면 신체형(태형·장형), 자유형(도형·유형), 사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형과 유형 중에서는 도형이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이다(배미란, 2023: 21). 또한, 1872년 4월의 「징역법(懲役法)」, 동년 11월 29일의 「감옥칙병도식(監獄則並圖式)」의 반포를 통해, 영국의 동양 식민지인 홍콩·싱가포르 감옥에서 시행 중인 서양식 처우 형태를 도입했다. 「감옥칙병도식」은 서문에서 “감옥은 잔혹성의 장소가 아니라 자비의 장소이고, 고통 받는 곳이 아니라 처벌 받는 곳이다”라고 천명하면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입장을 보여줬다(監獄則並圖式, 감옥칙도식).⁴⁾

4) 「감옥칙병도식(監獄則並圖式)」은 감옥 규칙 및 규정(일본 최초의 감옥법)을 의미한다. 태정관 포고령(太政官達第378号)으로 공포되었다. 감옥칙병도식은 서문에서 “감옥은 범죄자를 감금하고 징계하는 수단이다. 감옥은 잔인함이 아닌 자비를 보여주고, 사람들을 징계하는 수단이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다. 형벌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해를 제거하는 불가피한 방법이며, 감옥의 장은 범죄자를 대하는 방식에서 이 의도를 구현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본문은 건설, 투옥, 형무소, 질병, 처형, 공무원 및 기타 조항의 7개 주요 부분으로 나뉘며, 1~17절의 그림을 포함하여 감옥을 형무소, 여성 감옥, 병자 감옥, 징계 감옥 및 관용 감옥으로 구분한다. 또한, 형무소에 복역하는 일반 수감자에게는 승진 제도를 도입하여 5개 계급으로 나누어 토목, 황무지 개간, 목공, 단조, 가죽 가공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게 했으며, 형기는 8시간으로 정했다(監獄則並圖式, 감옥칙도식). 그러나, 쇼와 43년 범죄 백서에 따르면, 감옥칙도식은 비용 문제로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웠다. 출처: https://hakusyo1.moj.go.jp/jp/9/nfm/n_9_2_3_1_3_0.html(검색일: 2024.12.19).

나아가 신정부는 다음 해인 1873년 6월 「개정율례」를 반포했는데, ‘개정율례’는 태형, 장형, 도형, 유형을 10일부터 10년의 징역형으로 단일화하고, 징역 10년 위에 중신형, 교수형, 참형, 효수형을 두었다(重松一義, 2004: 6).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징역형이 지배적인 형벌로 등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1879년 미야기(宮城)에서 서구의 영향을 받은 첫 감옥이 설립되었다. 영국의 건축가가 설계한 이 감옥은 벨기에의 루벤감옥과 매우 비슷하게 여섯 개의 방사형 형태로 구성되었다. 또한, 범죄자 처우와 인사 관리 방법에 관한 새로운 감옥법, 규칙 및 규정이 빠르게 도입되었고, 수정을 거듭했다.⁵⁾ 이런 과정을 거쳐 일본 감옥은 독일식 형법 아래,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식 방사형 구조가 혼합된 방식을 띠게 된다(Yanagimoto, M., 1970: 209-210).

홋카이도에서 수용자 노동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은 1877년, 「전국의 죄수를 특징의 도서에 보내 총징치감으로 한다」는 원로원 결의와 1879년 내무경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제안으로 추진되었다. 이토 히로부미에 따르면, 홋카이도 수용자 노동의 목적은 “북면 미개발 땅에 장기 유도형수를 보내 자경 자식(自耕自食)하고 정부에 저항하는 위험 분자를 격리 배제하여, 내지(内地) 감옥의 부담을 경감하며 사회의 치안 유지를 기획”하는 것이다.⁶⁾ 또한 “유도형수(流徒刑囚)의 확실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홋카이도를 개척하고, 유도형수의 개과천선을 촉구하며 인구가 희박한 홋카이도에 정착하는 기회를 주어 자립 갱생”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일석이조·일석삼조의 책략으로, 홋카이도 개척 행형이 여러 의도로 추진되었음을 보여준다(重松一義, 2004: 24). 그리하여 마침내 1882년 구형법이 시행되어 노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⁷⁾ 구형법은 중대한 범죄, 경범죄, 경찰(명령) 위반의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범죄를 특정했는데, 제7조에 규정된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은 섬으로 보내져 처벌받을 수 있었다.

- 5) 그 후, 1881년 9월에 감옥칙이 제정되어, 감옥을 유치장, 감창(미결자를 구금하는 곳), 징치장(소년, 귀머거리, 비행으로 부모의 청원에 의해 수용하는 곳), 구류장(구류형에 처한 자를 구금하는 곳), 징역장 및 집치감(도형, 유형, 징역형)의 6종으로 나누었다. 1889년 7월에 공포된 개정 감옥칙은, 감옥을 집치감, 구류장, 지방감옥, 구치감, 유치장 및 징치장으로 재분류했고, 동시에 감옥칙 시행 세칙이 정해져, 형기, 공전(工錢, 물건(物件)을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품삯), 급여, 위생 및 사망, 서신 및 접견, 차입품, 상여, 징벌 등에 대해 규정했다. 출처: https://hakuso1.moj.go.jp/jp/21/nfm/n_21_2_4_1_1_1.html(검색일: 2024.12.19.).
- 6) 1885년 카네코 켄타로(金子堅太郎)는 ‘홋카이도 3현 복명서(復命書)’에서 감옥 운영비용 이외에도 개발의 경비부담을 줄이는 문제도 지적한다. “홋카이도에서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약 40전 이상이지만, 죄수는 하루 18전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죄수를 일하게 하면 도로 공사 비용 가운데 임금 부문에서 절반 이상을 삭감할 수 있다. 이는 정말로 일거양득의 방책이다”(小池喜孝, 2018: 123).
- 7) 1880년(메이지13년) 7월 17일 태정관(太政官)포고(布告) 제36호로 최초의 근대적인 형법전(刑法典) 인형법(刑法)(통상 ‘구형법(舊刑法)’이라고 칭함)을 제정하게 되었다(1882년 1월 1일 시행). 당시 메이지정부는 프랑스 파리대학의 조교수였던 브아소나드(Gustave Emile Boissonade, 1825~1910)를 법률고문으로 1873년 일본에 초빙하여 형법전 편찬작업을 추진했으며, 동 교수가 기초한 초안(1877년 완성)을 바탕으로 구형법을 제정하게 되었다(이동희, 2020: 63).

또한, 1882년 구형법의 부칙 시행에 맞춰 도형·유배·징역 10년 이상의 사람을 홋카이도 집치감에 집금할 수 있었다(重松一義, 2004: 24; 26; 27; 55). 이것은 이토 히로부미의 제안에서 보듯이, 내지 치안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었고, 홋카이도의 인구가 점차 증가해 자체의 치안을 위해서라도 집치감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수용자들은 도쿄(東京)와 센다이(仙台), 효고(兵庫)의 가류감에 집결하여 홋카이도로 호송되었다. 홋카이도에서 수용자들은 집치감과 분감, 외역소에서 숙식하며 일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엄격한 중앙집중제도를 통해 관리되었다. 프랑스의 유형 제도처럼, 형법의 시행 뒤에 설립된 중앙감옥은 각 지역 감옥을 관리했다. 메이지 유신과 행형제도 개혁, 그리고 홋카이도 개척은 당시 근대국가로 도약하려는 신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준다. 특히 행형제도의 영향은 지대했다. 둔전병과 집치감, 수용자 노동을 통해 홋카이도라는 일종의 식민지가 개척되었고, 정치, 경제, 군사, 치안과 행형 등의 제도가 확립되었다. 이를 통해 신정부는 내지의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판과 같은 지역을 확보할 수 있었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아시아의 식민지에 적용할 수 있었다.

IV. 집치감과 아바시리감옥의 역사와 구조

1. 홋카이도 집치감의 체계와 규율

홋카이도 집치감은 근대국가를 향한 일본의 의지와 행형제도가 국가와 지역에 미친 영향력을 보여준다. 집치감은 메이지 유신 이후 만들어진 감옥의 일종으로 도쿄(東京), 미야기(宮城), 후쿠오카(福岡), 홋카이도(北海道)에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내무성 소관이었다. 주로 도형(徒刑), 유형(流刑), 징역형(懲役刑)을 선고받은 수용자 중 중죄인, 12년 이상 형을 받은 수용자를 수용했다(三吉明, 1966: 149).⁸⁾ 홋카이도에는 삿포로와 하코다테 감옥서 외에 여러 집치감과 분감, 외역소가 있었다. 내지(内地, 홋카이도 이외의 혼슈·시코쿠·큐슈)에서 집결된 중죄수들은 주로 집치감으로 이송되어 도로 개착⁹⁾ 등의 노동에 투입되었다.

1881년(메이지 14년)에 중죄수에 의한 홋카이도 개척의 거점으로, 이시카리(石狩) 강 강변의 가바토군(樺戸郡) 츠키가타무라(月形村)에 가바토집치감(사실상의

8) 최초의 아바시리 외역소(網走外役所)는 1890년에 설치되었다.

9) 개착(開鑿, 산을 뚫거나 땅을 파서 도로 등을 낸)

본감)이 설치되고, 1882년에는 멀지 않은 이와미자와(岩見沢)에 소라치집치감이, 1885년에는 구시로집치감이 설치되고, 수용자에 의한 개척이 조직화되고, 분담되었다. 가바토(樺戸)는 1886년 삿포로 북서부의 ‘신천굴(新川堀)’ 13km의 개척이나, 가바토(樺戸), 소라치(空知) 사이의 직선도로 ‘미네노부도로(峰延道路)’와 ‘가미카와가설 도로(上川仮道路)’ (미네노부(峰延)-추베츠부토(忠別太) 간)의 개척에 착수하고, 주변 산림의 벌채와 농지 개척을 진행했다. 소라치집치감은 호로나이(幌内) 탄광의 채탄(採炭)에, 구시로집치감은 야스다 겐지로(安田善次郎) 경영의 유황 채굴의 하청과 관련하여, 도로호(塘路湖北岸) 북쪽가에 치부카루우시(チブカルウシ) 벌판에 외역소를 설치하고, 구시로, 시베차 간의 도로 개척에 착수했다. 가바토 집치감을 본감으로 여러 집치감이 도로 개척과 탄광채탄, 유황채굴 등 지역개발과 자원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홋카이도가 개척되기 시작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홋카이도 집치감의 역사와 체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1> 홋카이도 집치감의 개편 역사

1878 -1881	1882		1885	1886	1891	1895	1898 -1900	1901, 1903, 1907	1916	1919	1922	
내무성 소할				홋카이도청 소할		내무성 소할		사법부 소할				
하코다테 감옥서		삿포르감옥 카메다지서						하코다테 감옥서		하코다테소년감옥 →소 하코다테감옥		
삿포르 감옥서		삿포르감옥서		홋카이도청 감옥서			삿포르 감옥서			삿포르감옥		
							(육군민정서)		삿포르 감옥 사할린분감		사할린감옥(폐감)	
									아사히카와 감옥		삿포르 감옥 아사히카와 감옥	
→ (외역소)					도카치분감			도카치 감옥			오비히로 소년 감옥· 오비히로감옥	
→(외역소)				아바시리분감		아바시리감옥					아바시리 감옥	
(네무로 감옥서)		구시로 집치감		구시로분감			폐감		도카치 감옥 구시로분감		아바시리 형무지소· 구시로감옥	
		소라치집치감			소라치분감			폐감				
		가바토집치감			홋카이도 집치감(본감)			가바토감옥		폐감		

* 출처: 重松一義. (2004). 史料北海道監獄の歴史. 信山社. 21p, 일부 수정

<표 1>에 따르면, 홋카이도에서 가장 먼저 개소된 집치감은 가바토집치감(樺戸集治監)으로 1881년에 개소했고, 뒤이어 소라치(空知, 1882), 구시로(釧路, 1885),

아바시리 분감(網走分監, 1891)이 설치되었다. 집치감의 체계를 살펴보면, 집치감은 1885년까지 내무성 소관이었으나, 1886년부터 1894년까지 홋카이도청, 1895년부터 1900년까지 내무성, 그리고 1901년부터는 사법부 관할로 운영되었다. 집치감 아래 분감, 분감 아래 다시 외역소가 있었고, 인원은 집치감 전옥, 의사, 교회사, 감옥서기(촉탁, 기술자, 고용인), 간수장(간수부장, 간수)으로 구성되었다. 이때 집치감 전옥은 내무성출신 관료로서 단순히 죄수를 관리하고 개척에 참여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공포에 대한 국방의식, 둔전병 수준의 선병(選兵)적 지휘관이라는 의식이 있었고, 그런 책무와 위상이 있었다. 따라서 그의 권한도 광범위했는데, 심지어 구금에서 풀려나거나 가석방된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할 권리와 결혼을 허가할 권리까지 있었다(重松一義, 2004: 21-22).

집치감 전옥이 이와 같은 광범위한 권한, 즉 감옥의 장, 군대의 지휘관, 지방정부의 장과 같은 위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기관의 목적이 개척과 국방, (이주)정착까지 포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집치감의 주변에는 둔전병(屯田兵)이 거주하면서 죄수의 폭동·도주에 대비하고, 외부의 적을 방어했다. 이와 같은 인식은 메이지 유신 이후 몰락한 무사계급(사무라이)들을 활용하여, 치안과 국방을 유지하고 홋카이도를 개발하자는 제안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집치감 주변에는 일종의 군사마을이 조성되어, 둔전병들이 주민으로서 지역을 개발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했다(Mason, M. M., 2012). 행형제도가 단순히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개발과 국방 강화라는 국가의 전략에 복무한 것이다. 여기에서 수용자들은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이자, 북방개척의 노동자였고, 예비군이었으며, 미래의 지역 정착민으로 다루어졌다. 따라서 집치감의 통제체계와 규율은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었다.

<표2> 홋카이도 집치감의 규칙과 처우

구분	내용
시설명	본감과 분감 및 외청
건조물	목조 감방, 판자 울타리, 검은 담벽
입지조건	내륙부 평탄지, 강의 구부러진 부분을 선정
기후	한랭 적설 지대, 농경, 제재(製材)에 적합
죄질형기	여성을 일절 수용하지 않고, 형기 12년 이상 무기형, 중죄만
죄수명단	신분장이라고 부르고, 술(成)신(申) 등의 간지를 연호로, 머리글자에 죄수 번호를 붙인다
경례	일본식으로 고개를 숙이는 묵례(默禮)
서신(편지)발송	성적에 따라 차이, 자기 부담
서신(편지)열람	계호본부 직원 및 교회사가 검열
금전소지	일체 소지하지 않고 영치금으로 한다
흡연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이발	한달에 한 번, 짧은 머리
의복	감색 1색 (작업복, 사방의복이 별도로 있음)
하착(下着)	단의(單衣) 3일마다, 유반(襦袢) 5일마다(메이지 5년)
죄수생산물	모두 국고에 납품
물수물	이용 혹은 폐기
어린이와 접촉	길가, 농장 옆에서 죄수와 인사, 대화 등 묵인
위반행위	싸움, 도주 시도 등
도주연락	빈 강통을 두드리거나 구두 연락
경비기구	일본도, 단봉
재범자	특별한 구분없음

* 출처: 重松一義. (2004). 史料北海道監獄の歴史. 信山社. 37p

집치감에서 수용자들은 엄격한 규율 아래 생활하고 노동했다. <표 2>에 따르면, 집치감은 수용자에게 의복을 지급했다. 의복은 수용자에게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각인시키고, 관리자에게는 통제를 편리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의복의 색깔은 감색이었는데, 이는 감시와 통제, 도주 방지에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용자가 도주하더라도 눈에 잘 보이는 의복 색 때문에 쉽게 체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수용자는 한 달에 한 번 이발할 수 있으며 담배는 피울 수 없었다. 경례는 목례로 하고, 모든 서신(편지)은 직원이나 교회사가 열람하며, 서신(편지)을 발송할 수 있지만, 행형 성적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때부터 이미 분류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분류제도는 죄수 간 상호접촉을 막아 범죄의 전염과 감옥에 끼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특히 집치감에서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죄수를 구분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노동생산성을 증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용자는 싸움이나 도주를 시도하는 등 감옥 규칙을 위반하면 독거실에 수용될 수 있었다. 징벌은 감옥을 운영하고, 수용자를 통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수용자가 감옥 규칙을 잘 따르지 않는다면 감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개척을 위한 노동에 동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독거실은 작은 독채 형태로 사동과 별개로 떨어져 있었는데, 감옥의 규칙을 위반한 수용자는 일정 기간 독거실에 수용되어 죄를 반성해야 했다. 독거실은 창문이 없어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어두웠고, 식사량을 줄였기 때문에 수용자는 배고픔에 시달렸다. “징역은 근성을 가져라!”는 낙서가 손톱으로 새겨져 있을 정도였다. 이 독거실은 사당(祠堂)처럼 생겼다고 해서 죄수끼리는 이나리(곡식의 신(神))방이라고 자조적으로 불렀다.

의복의 일괄지급, 흡연금지, 성적에 따른 차등처우, 서신검열, 징벌 등은 감옥이 근대적 형태의 기능과 규율을 갖춘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대 이전의 감옥은 신체형이나 범죄의 조사를 위한 대기 장소였다. 대부분의 수용자는 참형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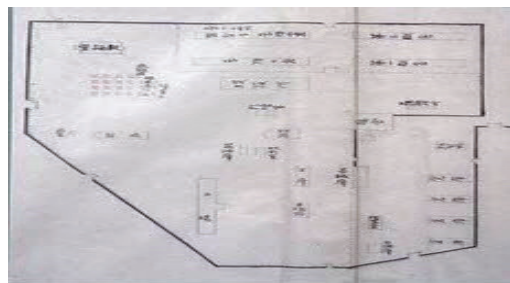
교수형 등 신체형으로 다스려졌고, 이를 통해 권력자는 자신의 위엄을 보이고, 질서를 유지했다. 그러나 범죄자에 대한 신체형의 폐지 이후, 처벌은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목숨을 끊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신체의 능력을 유지하고 활용하는 방법으로 진화했다. 따라서 수용자는 기관에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했고, 쓸모 있는 존재로 거듭나야 했다. 이때의 쓸모는 수용자 자신의 삶을 위해서라기 보다, 국가나 지역 차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유용성이다. 따라서 엄격한 규율과 차등 처우가 필요했다. 이를 통해 거칠고 예측 불가능했던 수용자는 통제할 수 있고, 유용한 존재로 거듭난다. 일본 역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용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었다.

2. 아바시리감옥의 공간과 기능

홋카이도 집치감의 시설과 공간은 집치감의 목적과 운영체계가 집약적으로 구현된 곳이다. 감옥 내에서 어떤 공간과 어떤 장치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메이지 유신 이후 신정부가 추진했던 행형개혁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 절에서는 홋카이도의 최북동쪽 아바시리에 위치했던 아바시리감옥의 사례를 통해 홋카이도 집치감의 공간과 기능에 접근한다.

아바시리감옥은 소라치와 가바토 두 집치감으로부터 중앙도로 개착을 위해 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전옥 오이노우에 테루치카가 1890년(메이지 23년) 3월, 아바시리 주변을 시찰하고, 아바시리 호숫가에서 아바시리 강쪽으로 구릉을 등지고 있으면서, 크게 굽은 평지를 도로 개착의 기점으로 판단하고, 장소를 정했다. 이렇게 해서 아바시리외역소가 문을 열었다(重松一義, 2002: 17). 아바시리감옥은 1890년 외역소로 설치된 이래, 1891년 분감이 되었고, 1898년 대사면으로 수용자가 대규모로 감소해, 일시 폐쇄되었다가 1903년 독립감으로 승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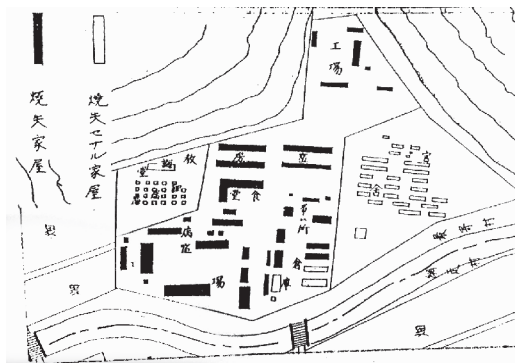
<그림1> 창설 당시의 아바시리 감옥 배치도(1890)



※ 출처: 촬영, 2023년 2월 9일

<그림 1>에서 보듯이 오른쪽 상단의 4개의 긴 건물이 수용사동이고 왼쪽 상단의 가장 구석에 있는 건물이 교회당이다. 사동 앞에는 식당이, 식당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사무소 및 창고, 왼쪽에 환자를 위한 건물과 공장이 있다. 감옥은 검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외부에 관사가 있다. 이때만 해도 서양의 감옥 건축 양식이 도입되지 않았다. 각각의 사동은 분리되었고, 일망 감시의 형태도 보이지 않았으며, 관리동 역시 사동과 분리되었고, 공장도 창고도 별도로 위치했다.

<그림2> 창설 당시의 아바시리 감옥 배치도(1890)



※ 출처: 重松一義, (2002), 博物館 網走監獄, 網走監獄保存財団, 2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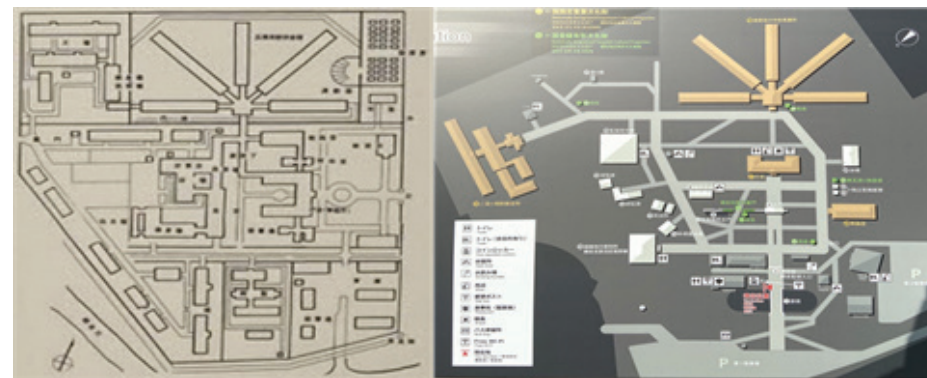
하지만 감옥은 1909년 화재로 거의 모든 건물이 불에 탔다. <그림 2>에서 검은색으로 표시된 건물은 화재로 소실된 부분이고, 하얀색으로 표시된 건물은 소실되지 않은 건물이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바시리감옥은 1909년 대화재로 청사, 수용 사동, 교회당, 공장, 창고 등 관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건물이 소실되었다. 한편으로 화재는 집단 탈옥의 기회였으나, 탈주자는 없었고, 수용자 23명과 직원 10명이 가벼운 타박상과 화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수용자 86명은 후타미가오카(二見ヶ岡)로 이송되었고, 나머지 수인들은 야외 독거실과 창고에 임시 수용되었다.

따라서 감옥은 새롭게 건축될 수밖에 없었는데, 1909년부터 약 3년에 걸쳐 총인원 269,512명의 수용자를 동원하여 복구했다. 1912년에 복구된 감옥은 그 이전과 비교해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

<그림 3>은 1912년 복원공사 후의 배치도와 1985년 박물관 자리로 옮겨 지은 후의 배치도를 보여준다. 가장 큰 변화는 수용사동에서 나타났다. 복원된 아바시리 감옥은 서구식 형태의 방사형 구조로 건축되었다. 메이지 시대 초, 일본은 감옥 건축에 파놉티콘(Panopticon)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아바라시감옥도 당시 영국을 중심으로 정착하고 있었던 방사형 구조를 도입했다. 특히 벨기에의 루벤 감옥을

모방하여 건축했다. 이는 방사상의 5동이 중앙의 육각형의 중앙 감시소로 연결된 구조였다.

<그림3> 복원공사 후 배치도(1912)와 이축 및 박물관 개관 후 배치도(1985)



※ 출처: 촬영, 2023년 2월 9일

파놉티콘은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감옥의 한 형태로, 중앙의 관리자를 중심으로 반원의 수용거실이 배치된 것이다. 흔히 일망 감시체제로 불리는데, 왜냐하면 이 공간에서 관리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수의 수용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관리자는 수용자를 볼 수 있지만, 수용자는 관리자를 볼 수 없다. 수용자는 관리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중앙에서 감시하고 있는지 혹은 부재한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수용자는 관리자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 관리자가 부재할 때에도 관리자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아바시리감옥에서도 관리자는 5개의 사동이 만나는 복도의 중앙 감시소에서 수용자를 관리했다. 감시소는 감옥의 요충지로, 중심에 위치해서, 이곳에서 다섯 번의 점검, 출역환방(出役環房) 등의 명령을 내려 일제동작(一齊動作)을 감시하고 단속했다.

중앙감시소를 중심으로 5개의 방사형 복도를 따라 좌우로 수용 거실이 배열되어 있고, 복도의 위쪽은 불빛이 통하는(明かり採り)-투명한 플라스틱 판을 통해 내부의 불빛을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수용자의 재실 여부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부품) 천장이 있었다. 사동은 혼거실과 독거실을 포함하여 226개였고, 최대 7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목조 행형 건축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최대 규모였으며, 1912년부터 1984년까지 사용되었다.

〈그림4〉 수용거실 문과 비스듬한 창살



※ 출처: 좌_ https://m.blog.naver.com/hsydream1/221525119893?view=img_23(검색일: 2024.12.19.), 우_촬영, 2023년 2월 9일

〈그림 4〉는 수용거실 문과 창살을 보여주는데, 수용 거실의 문은 단단한 들메나무가 사용되었고, 복도 쪽으로 벽면은 격자형 목재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비스듬히 세워졌다. 예를 들어 관리자는 복도에서 감시와 보안을 이유로 감시용 구멍을 열거나, 비스듬한 창문을 통해 감옥 내부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용자는 직원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감시구멍을 열고, 자신을 감시할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 생활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창문의 목재 창살이 비스듬하게 배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너편의 죄수와 눈을 맞출 수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감시 시설은 사동 외부에도 있었다. 아바시리 감옥에는 고견장(高見張)이라 불리는 높이 8m의 망루 형태 감시대가 뒷산과 정문 앞 경교(鏡橋; 거울다리) 부근 등에 설치되어 있었다. 직원들이 2시간씩 교대로 탈옥과 침입을 대비하고, 내외를 감시했다. 그리고 독립형 독거실을 통해 규칙을 위반한 수용자를 징계하고, 교회당을 설치하여 수용자들에게 정신적, 윤리적, 종교적 지도를 제공했다. 이 공간과 시설들이 외에도 아바시리감옥에는 청사, 목욕탕, 식당, 직원 관사, 초소, 정문과 통용문(후문), 담장 등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아바시리감옥은 방사형 형태와 밝은 천장, 관리자 중심의 수용거실 문과 창살, 고견장과 독거실, 교회당이라는 공간과 장치를 통해 수용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모와 반란을 억누르고, 탈옥을 방지하며 노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V. 수용자의 노동과 성과

메이지 19년(1886년) 홋카이도청이 설치되면서 홋카이도의 개척과 신민정책이 본격화되었다. 이 개척의 첨병(先兵), 돌파구, 불도저로서 역할을 내지(内地)의 장기의 중범죄자가 짊어졌다. 그 발상은 후쿠오카 번사(藩士)로 하버드 대학에 유학하여

법률을 공부해온 약관(弱冠) 32살의 태전관대서기관(太政官大書記官) 카네코 켄타로(金子堅太郎)가 메이지 18년(1885년) 여름, 홋카이도를 시찰하고, ‘홋카이도 3현 복명서(復命書)’라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에서 확인된다. 그에 따르면 “원래 그들은 폭력(暴戾)의 악도(惡徒)이며, 평범한 형벌로는 부족하고, 고역(苦役)을 당해야 하고, 이것에 의해 쓰러져 죽더라도, 감옥비의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만부득이한 정략(政略)이다.” 이것은 곧바로 채택되어, 내무경(内務卿)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고역본분론(苦役本分論)’(징계주의론(懲戒主義論))이라는 유명한 훈시가 되었다(重松一義, 2002: 12). 이른바 수용자는 쓰고 버려져도 마땅한 존재라는 것으로 수용자에게는 죽음이나 다름없는 훈시가 발표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지에서 수많은 수용자가 홋카이도로 호송되었고, 탄광개발과 도로 개척에 투입되었다.

〈그림 5〉에 따르면, 홋카이도에서 수용자는 메이지 14년(1882년)부터 27년(1894년)까지 가바토, 소라치, 구시로집치감과 아바시리분감의 관리 아래 농지개간, 산림벌채, 탄광채석, 도로 개척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여러 갈래의 주요한 도로를 개척했는데, 수용자들이 개척한 구간과 길이는 가바토-도베쓰(樺戸~当別) 약 21km(가도로, 仮道路), 이치키-타다베쓰(市来知~忠別太) 약 56km(가신도, 仮新道), 가바토-오소키나이(樺戸~オソキナイ) 약 12km, 시베차-앗케시(標茶~厚岸) 약 38km, 가바토-이치키(樺戸~市来知) 약 18km(미네노부 도로 중 가바토 가도, 街道), 이치키-타다베쓰(市来知~忠別太) 약 88km(개수도로, 改修道路), 이치키-이쿠순베쓰(市来知~幾春別) 약 43km, 가바토-도베쓰(樺戸~当別) 약 21km(개수도로), 가바토-마시케(樺戸~増毛) 약 101km, 시베차-구시로(標茶~釧路) 약 34km, 이와미자와-이치키(岩見沢~市来知) 약 37km, 이치키-유마리(岩見沢~夕張) 약 23km, 데시카가-아바시리(跡佐登~網走) 약 38km, 타다베쓰-기타미고개(忠別太~北見峠) 약 60km, 아바시리-기타미고개(網走~北見峠) 약 163km, 오쓰-메무로(大津~芽室) 약 46km였다(重松一義, 2004: 45).

〈그림5〉 홋카이도 수용자 노동의 발자취



※ 출처: 古松丈周, & コマツタケノリ, (2021), 北海道の「集治監」をめぐる歴史認識の諸相—ダーク・ツーリズムと近代の他者—. 旭川大学経済学部紀要, (79-80), 30쪽

아바리시감옥의 경우 북쪽의 방비를 위한 중앙도로의 필요성 때문에 설치되었는데, 먼저 선발대 50명이 2개월에 걸쳐 임시감(假監)과 임시(假)사무소를 건설했다. 다음에 메이지 23년(1890년) 4월 아바시리외역소가 개설되어 구시로 집치감에서 죄수 1200명과 간수(着守) 173명이 불과 631명의 인구만 거주하는 아바시리 마을로 이동해 아바시리외역소가 탄생하게 되었다(重松一義, 2002: 16-18). 그곳에서 수용자들은 혹독한 자연조건 아래서 중노동에 시달려야만 했다. 아바시리 초대 분감장 아리마 시로스케(有馬四郎助)는 중앙 도로(아바시리-기타미고개(網走~北見峠)) 개착 예정 노선을 답사하여, 노선을 종점까지 13구로 나누고, 한 구간에 간수장 한 명, 감독 보조(간수부장) 두 명, 간수 12명과 200명의 수용자를 배치하고, 각 분담 구역은 양 끝 단에서부터 쌍방 협공하는 것처럼 경쟁시켰다. 그래서 한 구간의 작업이 중앙부에서 만나면 끝이 나고, 다시 다음 구역으로 이동해 가(仮, 임시)숙박소(혹은 휴박소)를 설치하는 등 이동 감옥 방식을 채택하여 공사를 진두지휘했다.

아리마는 교통이 불편한 산중에서 의료부족과 곤란한 식량보급, 수종(水腫)병이 속출하는 가혹한 조건 속에서, 많은 희생을 내면서도 지상명령(至上命令)의 기한대로 1891년 4월부터 11월까지 단기간에 중앙도로를 관통시켰다(重松一義, 2002: 18). 이로써 홋카이도 제일의 동맥인 국도 39호선이 개통되었다. 수용자들은 163km를 건설했고, 도로 폭은 5.45m였고, 교량은 23곳에 설치되었다. 수용자들의 노동으로 건설된 간선도로에는 국도 39호선(아사히카와-기타미)과 국도 12호선(삿포로-아사히카와)이 포함되었으며, 연결된 노선 전체를 합하면 길이는 724km로, 이로써 삿포로 북쪽의 홋카이도 주요 간선도로가 연결되었다.

〈그림6〉 휴박소와 사슬 노동



※ 출처: 촬영, 2023년 2월 9일

〈그림 6〉은 수용자가 중앙도로 개통공사를 위해 외역작업을 할 때 이용했던 휴박소를 보여준다. 일종의 가건축으로 간단하게 건설 해체가 가능한 오두막집이었는데,

이것을 ‘휴박소가감’ 혹은 ‘움직이는 감옥’이라고 불렀다. 이때 수용자는 이불 한 장에 통나무 한 개를 길게 늘어놓은 베개에서 한꺼번에 잤다. 수용자들이 하나의 통나무 베개에서 집단적으로 잠을 자야만 했던 이유는 통나무 베개가 수용자들을 깨우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수용자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4-5시간으로 매우 부족하여 아침에 쉽게 깨지 못했는데, 관리자는 통나무 가장자리를 두드려 수용자들을 한꺼번에 깨울 수 있었다. 이러한 노동형태가 이후 다코베야(タコ部屋, 노동자 합숙소) 노동으로 이어졌다.

오른쪽의 사진은 탈주를 방지하기 위한 사슬을 보여준다. 수용자들은 서로 연결된 탈주 방지 목적의 사슬을 차고,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만 했다. 사슬의 길이는 약 1장이었고, 무게는 450묵, 철의 무게는 70묵이었다. 수용자들은 이 사슬을 차고 가파른 절벽과 산악 지역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계절과 날씨와 상관없이 일했다. 이 기간에 약 1,115명이 출역했고, 병을 얻거나 부상한 사람이 914명, 사망자는 186명이나 되었다. 1902년 아바시리 감옥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탈출한 사람은 죽고, 병든 수감자는 죽고, 그들의 시체는 바람과 비에 버려졌습니다”라고 적었다(重松一義, 1970: 247). 사망한 수용자들은 쇠사슬과 함께 묻혔고, 이것이 나중에 발견되어 ‘쇠사슬 무덤(鎖塚)’으로 불리었다. 현재는 이들의 혼을 위로하는 위령비가 도로 곳곳에 건립되었다.

수용자들의 희생으로 도로가 개통되었고, 이를 통해 이주민들이 홋카이도의 북쪽과 동쪽으로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으며, 이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도로가 개통된 후에는 경제적, 행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도로는 동부 홋카이도 발전의 대동맥이 되었다. 도로 개착 공사는 끝났지만, 아바시리감옥은 농업 감옥으로 성장했다. 또한, 수용자들의 노동 전문성이 인정되어 태평양전쟁 중에는 비행장 건설에 투입되기도 하였다.

VI.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 근대 초기 감옥의 체계와 수용자 노동의 특성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메이지 유신 후 홋카이도 개척기 집치감과 아바시리감옥의 사례를 통해 그것에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홋카이도 개척사와 행형의 역사, 감옥의 공간과 구조, 규율과 처우, 수용자의 노동 환경과 작업 방식 등을 파악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추구했는데, 행형개혁을 통해 국가의 치안을 확보하고 국방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것을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한 곳이 홋카이도였다. 홋카이도는 러시아의 남하 정책, 그리고 일본의 근대화 정책으로 인해 국방경비와 자원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급부상했다. 메이지 신정부는 홋카이도 개발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실험하고 경험을 축적하고자 했는데, 이때 수용자들의 노동력이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각 지역의 중범죄자들은 홋카이도로 보내져, 집치감에서 분감으로 다시 외역소로, 그리고 다시 휴박소를 전전하며 도로 개착에 투입되었다. 수용자들은 혹독한 환경에서 엄격한 규율과 열악한 처우를 받으며 생활했다. 이러한 가혹한 조건 아래서 많은 수의 수용자들이 죽거나 병들었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홋카이도 발전의 초석이 다져졌다. 또한, 메이지 신정부는 홋카이도 개척의 경험을 동아시아의 식민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 감옥 체계와 수용자 노동은 목적과 내용, 형태에서 현대의 그것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첫째, 수용자 노동은 철저히 국가의 전략적 이해를 달성하는 데로 초점이 맞춰졌다. 물론 그것은 응보적 차원에서 추진되었지만, 수용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와 상관없이, 혹은 수용자의 사회 복귀와 무관하게 오로지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 따라 수행되었다. 당시 신정부는 봉건제와 결별하고 국민국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었다. 메이지 유신 초기에는 영주와 무사들의 저항이 끊이지 않았고, 사회적 혼란도 지속되었다. 또한, 서구의 열강들은 끊임없이 연안에 출몰해 정치 권력을 위협했다. 따라서 신정부는 행형개혁을 통해 치안을 확보하고, 중죄인의 노동력을 활용해 지역을 개발하고자 했다.

둘째, 수용자의 노동은 근대와 현대 사이의 과도기적 형태를 띠고 있었다. 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노동은 도형과 유형, 징역형이 결합된, 모호한 형태를 보였다. 과거에 중죄인은 태형이나 장형, 교수형이나 참형으로 다스려졌다. 그리고 신분이 하락하여 노비로 전락하거나, 절해고도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 이후 중죄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도형과 유형에 의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수용 생활을 했다. 홋카이도에서 수용 생활은 사실상 ‘완만한 사형’이나 마찬가지였다.

셋째, 수용자의 노동이 지역과 국가에 미친 영향이 지대했다. 현대의 노동은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수행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노동의 결과 역시 수용자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된다. 물론 장기적 측면에서 수용자의 재범을 줄여 사회에 도움을 주겠지만, 홋카이도의 죄수 노동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력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도로건설로 이주민의 유입이 활발해졌고, 지역이 개발되었으며, 행정의 권한이 풀뿌리까지 미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홋카이도 개척기에 수용자의 노동이 국가의 전략적 차원에서 실행되었고, 여러

형벌이 결합한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수용자 노동의 목적과 내용, 방식이 국가의 정책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2022년 6월 17일 개정형법을 공포했는데, 이 개정형법에 따르면 현행형법에서 정하고 있던 ‘징역’과 ‘금고’를 삭제하고 하나의 ‘구금형’으로 통합했다(배미란, 2023: 27). 다시 말해 노역이 수반되는 ‘징역형’과 그렇지 않은 ‘금고형’을 통합한 것인데, 왜냐하면 노역하기 어려운 고령 수용자는 증가하는 반면에, 젊은 수용자는 재범방지에 필요한 지도를 받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형벌에 형벌을 더하는 것에 불과한 의무로서의 노역은 폐지하되, 사회 복귀를 돕는 작업 혹은 지도를 강화했다. 이는 노역을 위한 노역, 열악한 조건에서의 중노동이라는 형벌로서의 노역이 아니라면, 수용자의 개선갱생 도모를 위해, 수용자의 의사와 배치되더라도, ‘작업 또는 지도’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형제도는 수용자의 미래와 사회를 위해 정책을 수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용자는 자신의 미래 혹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아바시리감옥의 사례는 감옥의 설립이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당시에 감옥 자체는 신문물의 산물이기도 했고, 신기술이 가장 먼저 도입되는 장소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아바시리감옥의 경우 정부의 시설이 작은 마을에 들어선 것 자체로 주민들의 관심을 받았고, 수용자 노동을 통해 지역 농업과 산업이 부흥하였다. 또한, 1912년 복구공사가 완료 후, 보일러를 통한 자가발전으로 사동과 관사에 전등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아바시리 지역에서는 최초의 전등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감옥은 낙후된 지역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아바시리감옥 수용자들의 고난과 희생은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수십 편의 영화와 드라마, 만화가 제작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감옥의 역사가 자원화되었다. 또한, 과거의 감옥 건물은 박물관으로 관광 자원화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근대 초기 국가적 변화를 꾀했던 일본의 신정부에게 있어서 행형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감옥의 체계와 운영, 수용자의 노동이 시대와 국가적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근대 행형제도가 중노동의 부과와 수용자의 희생이 있었지만, 지역과 국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수용자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부정적 유산에 대해서도 성찰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경험은 과거의 부정적 유산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성과를 계승하고 행형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유의미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김수빈, (2020), '통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교정시설 수용동의 역사적 변천과 거주성'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명재, (2022), '홋카이도 (北海道) 개척과 아바시리 (網走) 형무소의 참상', 일본어문학, 96(1), 481-500, 일본어문학회.

문준영, (2004), '제국일본의 식민지형 사법제도의 형성과 확산: 대만의 사법제도를 둘러싼 정치·입법과정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30), 189-231, 한국법사학회.

박 훈, (2014),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민음사.

배미란, (2023), '일본 자유형의 변천과 구금형의 창설', 동북아법연구, 17:3, 19-39,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원재연, (2019), '갑오~ 광무 개혁기 감옥의 변화와 인권-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전북학연구, 1, 177-212, 전북연구원.

유병철, (2012), '우리나라 감옥 행형의 연원 (淵源)', 교정연구, 56, 229-264, 한국교정학회.

이동희, (2020), '일본의 형법 개정의 연혁과 주요쟁점', 비교형사법연구, 21(4), 61-10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종민, (1998), '식민지하 근대감옥을 통한 통제 메카니즘 연구: 일본의 형사처벌 체계와의 비교' (Doctoral dissertation, 연세대학교 대학원).

_____, (1999a), '1910년대 근대감옥의 도입 연구',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22(2), 185-205, 한국학중앙연구원.

_____, (1999b), '식민지 시기 형사 처벌의 근대화에 관한 연구-근대 감옥의 이식, 확장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55, 11-40, 한국사회사학회.

_____, (2016), '제국 일본의모범감옥·도쿄·타이베이·경성의 감옥 사례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77, 271-30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周愛民, (2016), '한·중·일 대만 근대 감옥의 설립 배경과 특징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78, 289-315, 한국근현대사학회.

최정기, (2003), '수형자의 불만과 저항', 뉴 래디컬 리뷰, (16), 183-206, 뉴 래디컬 리뷰.

한인섭, (1989), '자본주의 국가의 감옥과 사회제도에 관한 연구: 역사적 형성과 사회적 작용을 중심으로'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홍문기, (2019), '1894 년 [감옥규칙 (監獄規則)] 성립과 근대 감옥제도의 도입 양상', 한국사연구, (185), 83-124, 한국사연구회.

■ 외국문헌

Botsman, D. V. (2013). Punishment and power in the making of modern Japan. Princeton University Press.

Huang, S. M., & In Miazza, F. The Colonial City and the Taihoku Prison.

Huang, S. M., & Lee, H. K. (2019). Heritage, memory, and punishment: Remembering colonial prisons in East Asia. Routledge.

Kang, J. W. (2016). The Prison and Power in Colonial Korea. Asian Studies Review, 40(3), 413-426.

Lyons, A. J. (2017). Karma and Punishment: Prison Chaplaincy in Japan from the Meiji Period to the Present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Mason, M. M. (2012). Harvesting History: Modern Narratives for Patriotic Pioneers and the Imperial Military. In Dominant Narratives of Colonial Hokkaido and Imperial Japan: Envisioning the Periphery and the Modern Nation-State (pp. 31-55). New York: Palgrave Macmillan US.

Mullins, E. L. C. (1945). A JAPANESE CIVIL PRISON. How. J., 7, 85.

Powell, L., & Du, C. (2015). Escaping Sugamo Prison with a no. 2 pencil: the drawings of Japanese war criminal Tobita Tokio. Visual Studies, 30(1), 1-19.

Yanagimoto, M. (1970). Some features of the Japanese prison system. Brit. J. Criminology, 10, 209.

監獄則並図式

古松丈周, & コマツタケノリ. (2021). 北海道の「集治監」をめぐる歴史認識の諸相—ターク・ツーリズムと近代の他者—. 旭川大学経済学部紀要, (79-80), 23-40.

三吉明. (1966). 北海道の集治監とキリスト教.

小池喜孝. (2018). 鎖塚: 自由民権と囚人労働の記録. 岩波現代文庫

重松一義. (1970). 北海道行刑史. 図譜出版

重松一義. (2002). 博物館 網走監獄. 網走監獄保存財団

重松一義. (2004). 史料北海道監獄の歴史. 信山社

■ 기타자료

옛 나라 감옥, <https://former-nara-prison.com/>

일본 법무성 범죄백서, https://hakusyo1.moj.go.jp/jp/nendo_nfm.html (검색일 : 2024. 12. 19.)

남·북한 교정 행정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하)



정상규
前 부산교도소 교위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독일의 교정행정 통합 사례
- IV. 교정행정 통합방안
- V. 결론

참고문헌

IV. 교정행정 통합방안

통일 후 독일의 교정행정 통합도 일반행정의 통합에 발맞추어 연방정부는 서독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구동독 교정조직과 교정시설을 주 정부에 이관하였는데 주 정부 교정법이 발효되면서 동독지역 교정조직의 해체 및 개편작업이 추진되었다.

교정행정 분야의 물적 통합은 한시적으로 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한 연합 교정청을 신설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 기구를 통해 구동독 교정조직이 보유한 모든 동산에 대한 물품 조사와 기술적 장비 분배방안을 수립하고, 무엇이 어떤 주에 어떻게 지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목록표를 만들어 정비하였다(정상규, 2024p143).

각 주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요청을 한 후 지역 교정청에서 각 주별로 필요한 목록을 통보하면 물품 이양 여부가 결정되었다. 구동독 교정조직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5개 주교정대표자들의 타협에 따라 브란덴부르크 내무부가 일괄처리 하였다. 또한, 동독의 5개 주 정부 교정청은 서독의 각 주 교정청과 자매 결연을 맺고 인적·물적 지원을 받았으며 기존 교정공무원의 재심사, 직원교육 및 훈련, “재연수”를 실시하였다(정상규, 2022, p123).

통일조약의 인사 개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독일 교정행정 분야의 인적 통합도 진행되었는데, 교정청의 과장 이상 간부, 교정시설의 소장 등 고위직을 서독 출신자들로 교체하는 고위직 인사 개편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남은 동독지역 하위직 교정공무원은 재임용신청을 받아 개별심사 과정을 거쳤다(정상규, 2022, p129).

재임용은 적성, 능력, 전문성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다만, 반인륜적 범죄행위와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인권침해행위는 재임용 탈락의 첫 번째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동독의 법관, 검찰, 경찰, 교정공무원은 다른 공직자와는 다른 특별한 적격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엄격한 “자격심사”를 실시했는데, 자격심사에서는 과거의 행적조사만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전문적인 능력, 재교육에 임하는 자세, 직업윤리, 적성 등이 폭넓게 검토되었다(하태영, 2006, p65-66).

이러한 인적 재정비과정에서 55세 이상 공무원을 탈락시키고 하위직 동독 교정공무원의 약 50%를 재임용했다. 재임용 탈락자 등 부족한 교정공무원의 신규채용과 재임용자 교육을 위하여 5개 주의 교정청은 각각 교정전문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예산은 주 정부에서 지원되었다.

교정직은 구동독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직업이었으며, 주 정부 또한, 이들이 향후 교정개혁을 주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서민, 2020, p54-55). 한편 이러한 인적 통합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기도 하였는데, 동·서독 출신 지역에 따른 내부 갈등, 동독 출신 신·구세대 간의 심리적 갈등 등 대립 현상이 나타났다(정상규, 2024, p101-102). 서독 출신 고위직 간부와 동독출신 교정공무원 그리고 동독 출신 교정공무원 내부의

세대 갈등은 심각했다. 서독 출신 간부들은 동독출신 동료들을 창의력, 결단력, 분쟁해결 능력이 없고,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르기만 하고, 권위적이라고 비난했다(정상규, 2022, p102-103).

반면 동독 출신 교정공무원들은 서독 출신 간부들을 향해 지나치게 거만하며 동료 의식도 없고, 형식적인 업무 관행에만 집착한다고 비난했다. 40년 동안 이질화된 교정행정문화가 만들어 놓은 벽이었다(정상규, 2024, p107).

신·구세대 간의 갈등도 점점 증폭되었다. 동독 출신 재임용 교정공무원과 신규임용 교정공무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호 불신이 대단했는데, 서독식 직무교육을 받은 동독출신 젊은 교정공무원들은 기존 동독출신 교도관들이 아직도 동독의 관행에 젖어 있고, 복지부동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비판했다(정상규, 2024, p102-103).

1. 문제점 및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부패한 특수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는 북한 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남·북한의 통일과정이 독일의 통합 사례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교정정책의 통합방식 역시 동·서독의 사례와 동일할 수는 없으나 독일이 통합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통합 시 발생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해 고찰해 본다(정상규, 2022 p121).

남·북한의 통일 역시 독일 통합의 사례처럼 남한의 민주주의가 붕괴되어진 북한의 사회주의에 이식 되어질 것이라는 가정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정상규, 2022). 동·서독의 사례처럼 통일 후 교정행정 통합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는 교정인력 분야의 재정비 문제일 것이다(정상규, 2024, p121).

기존 북한지역 교화소 관리자 전부를 한꺼번에 교체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들 대부분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반인륜적 범죄행위와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인권 침해 행위자는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업무에서 배제 시켜야 한다. 나치 홀로코스트의 전범인 아이히만의 사례와 크메르루주 킬링필드의 투올슬랭형무소 카잉구엑 에 이브 소장의 사례처럼,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부의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특정 전쟁범죄자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정상규, 2024, p121).

그것이야말로 북한지역에서의 정의를 바로잡는 권선징악이며 북한의 지배계층과 일반 주민들 간의 화해와 용서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집권 세력의 지휘를 받던 하위직의 북한 수용시설 관리자 모두가 무조건적인 악으로 보는 시각은

너무 과도한 생각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대한제국의 일제 강점기 시 독립투사들을 핍박했던 일본인 형무소 관리자들의 만행에 대한 기억들로 인해 해방 후 대한민국 교도소에서 일반 범죄자를 수용 관리하는 교정공무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근거 없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간수라고 비하하며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었던 과거 역사도 다시 한번 진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정상규, 2022, p124).

결국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사고 관념 저변에 깔린 북쪽 수용시설 관리인에 대한, 고통만을 안겨주는 악의 세력이라는 극도의 부정적 인식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 역시 우리가 해답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정상규, 2024).

또한, 독일통일시 교정행정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의 하나인 출신 지역에 따른 내부 갈등과 신·구세대 간의 심리적 갈등 등의 대립현상은 북한지역에서도 역시 동일한 문제점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정상규, 2024 p127).

이를 극복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질 검증이 미흡할 수도 있는 남한 출신 공직자를 북한 교정시설의 기관장 등의 고위직으로 교체하기에 앞서, 먼저 남한 교정 당국 소속의 교정공무원을 북한 교정시설로 파견근무 시키는 ‘상주 감독관제 운영’을 고려해 보는 것이다. 한국 교정 당국은 민영 교도소 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정공무원인 감독관을 민영교도소에 파견¹⁾하고 있는데 이를 북한지역 교정 시설의 운영에도 적용시켜 보는 것이다(정상규, 2024, p121).

통일 초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과도기형 교정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성문 규범 없이 임의적 즉결 처분식의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던 기존 관리자들에게 성문의 절차법을 체득화시켜 교정 현장에서 정확하게 활용하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파견된 감독관이 현장에 상주하며 규정에 입각한 수용처우가 이루어지도록 지켜보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코치하는 것이다(정상규, 2024, p123-124).

또 다른 방안으로는 북한지역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던 기존 관리인력을 재활용하되 그들의 승진 필요조건으로 남한 교정시설에서의 ‘실무 수습 파견 근무기간’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 역시 기존 관리자들에게 성문화된 절차법에 대한 적극적인 체득과 실행만이 그들에게 더 나은 공직의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됨으로써, 관리인력 모두가 행정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긍정적인 습관화가

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2항에 근거한다.

조속하게 전파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정상규, 2024, p131-132).

이는 통일 직후 북한지역 교정시설의 운영방안으로 교화소 관리인력을 전원해고 후 신규채용 하거나, 또는 전원을 한꺼번에 교육시켜 재활용하는 것 역시 시간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설 운영의 합리성 및 직접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임자(예를 들어 승진예정자)에 대한 선택적 파견근무와 실무교육 이수자로부터의 현지 관리인에 대한 전달 교육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독일통일 후 동독지역에서 나타난 사회변화와 범죄양상은 또 다른 시사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통일 후 동독지역은 서독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경제상황이 급격히 개선되었고 통일 직후 1991년 경제성장률이 25%에 이르는 등 고도의 경제성장을 보여주었으나, 동독지역 주민 모두에게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정상규, 2022, p121). 통일의 후유증은 필연적이었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체제변화에 부적응한 개인의 좌절과 분노 등 심리적 공황 상태의 증가 및 소득 격차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경제적 빈곤층의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직면하게 되었고,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자본주의 일상에 대한 실망이 절망으로 바뀌어 알콜과 약물중독, 각종 일탈 및 아노미 현상, 자살, 범죄 등의 문제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서독 형법이 적용된 1991년부터 1993년까지의 동독지역 범죄율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1996년의 경우, 동독의 범죄율은 서독보다 약 1.26배 정도 더 높았다. 특히 1992년에는 범죄증가율이 무려 8.3%에 달했는데, 통일독일 이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도 독일의 경우와 유사한 비관적 사례가 나타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예상된다. 사회적 격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불안과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 북한지역에 범죄가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정상규, 2024, p131-132).

급격한 사회구조와 사회질서의 재편 그리고 시장 경제체제의 부적응 및 빈부격차의 확대,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 기존가치의 전복 등의 결과는 폭력 범죄 및 재산 범죄를 급증시킬 것이며, 마약범죄, 조직범죄, 테러리즘의 확산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서로 이질적이고 대립적이던 두 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혼란기를 틈탄 범죄의 증가를 최소화하고 증가하는 범죄자의 처리문제 등에 대한 사전 대비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 후 증가가 예상되는 범죄자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교정정책을 사전에 모색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남·북 교정행정 통합방안

1) 인권 친화적 교도소 시설 건축 및 보수

많은 수용인원은 북한수용소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막대한 행정수요와 예산이 수반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수용실태, 인원, 조직, 관련 법령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교도소시설의 건축 및 보수시 인권 친화적으로 난방, 냉방, 의료, 식사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정상규, 2024, p131-132).

2) 북한의 수용자 처우에 대한 인권 친화적 교정행정 및 프로그램

북한의 형사 법제와 수용시설 및 수용자 복지실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념적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북한은 노동당의 방침과 교시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사 법제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인하여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 준수에 있어서 후진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등에 수용하는 경우는 근거 법률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구류장을 제외한 수용시설들은 하루 12시간 이상의 강제노동을 위하여 운영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교육 및 교화 활동은 전무한 실정이며 주체사상을 암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시설 내에서의 구타, 가혹 행위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수용자 상호 간에도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정상규, 2024, p131-133). 교정조직의 합리적 통합은 대한민국의 교정본부를 중심으로 4개 지방교정청이 북한지역을 분할하여 관할하며, 북한 출신 고위공직자들의 정책 참여는 제한하여 신속한 자유 민주주의 교정정책의 정착을 도모하여야 한다. 조직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북한지역 인민보안성 소속 관료들이 경찰, 교정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분리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정상규, 2024, p132-133). 수용시설 근무자 처리에 있어서 반인륜적 범죄 행위자는 해임하고, 엄격한 사실관계 조사 후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하되 행정소송을 통해 해임할 사람은 해임하고 공정한 처벌과 재임용 기준을 마련하여 재교육 후 임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수감자는 남한이나 국제적 수준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즉 남한의 수용자 처우에 대한 인권친화적 교정행정 및 프로그램에 준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3) 남·북 교정공무원에 대한 처우 및 인사는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인사기준에 근거하여 실시

교정조직의 감독은 교정본부-지방교정청-교정시설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통일

초기에는 각 교정시설에 감독관을 파견하여 다각적으로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한다면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각 조직의 감독권은 안정기에 접어들 경우 점차로 지방교정청, 교정본부로 인계하여 기관의 감독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 교정공무원에 대한 처우 및 인사는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 인사기준에 근거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정상규, 2024, p134).

4) 북한의 작업에 대한 처우 및 가석방 제도 적극 활용

북한의 작업에 대한 처우와 석방은 남한보다 작업독려나 석방에 유리한 선시제도²⁾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작업에 대한 처우 및 가석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남한의 경우 노역제도와 과도한 지급은 하나의 문제이기도하다(정상규, 2022).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소망교도소의 구절처럼 북한의 노동단련대의 운영도 일부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범수용소 등 수용시설을 산업단지화하여 자력으로 경제활동을 유도하거나, 별도의 적응 교육을 통하여 사회에서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필요할 것이다(박영규, 2013, p131).

5) 교정 원로자문회의 구성

지난 79년 동안 추진해 온 수많은 교정정책의 결과물(수용자의 인권, 징벌, 외부교통권, 가석방, 갇생보호, 교정시설의 민영화, 외부 사회 인사 교정참여제도 활성화, 교도작업, 교정교육, 건강, 의료와 위생, 상벌제도, 권리구제제도, 사회 내 처우, 지역사회자원 구축방안, 교정조직의 효율화, 교정기구의 발전방안, 교정조직의 인사관리, 교정인력의 전문화, 행형 관련 국제조약 권고 수용)들은 통일 이후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정상규, 2024, p 128-129).³⁾

다만 이제는 모든 교정연구에서 반드시 북한지역 교정정책도 함께 검토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자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정비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한 교정간부 및 교정위원,

2) 선시제도는 원래 교도소 인구를 조절하고, 교도소 내에서의 선행을 장려함으로써 소내 질서를 유지하며, 교도소내에서 나오는 제품의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고안된 것이지만, 오늘날 수형자를 열악한 시설 내 생활로부터 가능한 빨리 사회에 내보내 그의 재사회화를 촉진시킨다는 형사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www.moj.go.kr] III. 한국통일 후 북한지역 교정정책의 방향 - 법무부

사회참여 인사 교정관련 학자 등을 중심으로 교정원로자문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남·북교정행정의 통합을 위한 교정원로자문회의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6) 교정공무원은 재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독일통일 후 복구 작업에 참여한 서독 공무원들의 정신적 준비는 참고가 될 것이다. 당시는 힘들었지만 무척 아름다운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우리에게 보내주었던 동독사람들의 신뢰는 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것은 한국 교정당국과 교정연구자들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교정본부는 남·북 통일이 되기 전에 ‘교정청’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국가 형벌권의 3대축 중 유일하게 교정본부만 독립되지 않고 있다. 교정본부가 교정청으로 독립, 신설되어 경찰청과 같이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가 시급하다고 본다. 교정조직 및 교정기구의 개편과 관련하여 7대 과제를 생각할 수 있다(정상규, 2024, p129).

“교정청(가칭)”의 독립 신설, “교정연수원의(가칭)”의 독립 신설, “교정공무원법(가칭)”제정, “한국 교정자원공사(가칭)”⁴⁾의 독립 신설, 그리고 교정공무원의 사기진작책 조속강구, 교정시설의 현대화 및 조속한 확충과 적정규모의수용(UN이 권고한 300-500명 이내) 등이다.

사실 사법 정책에서 교정만큼 중요한 국가정책이 어디 있는가. 이 분야는 준비를 하는만큼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교정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교정은 동기부여와 회생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교정행정의 과제는 통일 대비 미래를 향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통일이 오기까지 남한의 법치주의와 인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하고, 북한의 체제변혁과정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⁵⁾ 독일통일이 남긴 시사점을 나침반으로 삼아 이제는 차분히 그리고 구체적인 연구가 본격화 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방안으로 남·북한의 통일 후 교정행정 통합에서는 정치적인 요소의 통합 등 이질적인 분야의 통합 이후 행정통합의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법령 및 조직개편과 행정수요의 증가와 같은 어려운 과제가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의 사례에서

4) 교도작업을 공사형식으로 하여 교정자원공사의 공사로 교정직원들의 인사교류와 군복이나,작업복생산, 특정한 식품 및 제품을 생산하고 출소자들이 취업하도록하여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작업상여금의 지급으로 수용자 및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5) [www.moj.go.kr] III. 한국 통일 후 북한지역 교정정책의 방향 - 법무부

보듯이 조직의 통합과정에서 경험하는 교정공무원, 수용자 간의 다각적인 갈등 요소도 어려움으로 부각된다.

이와 같은 문제로 교정조직의 통합은 일반 행정조직의 통합보다 세밀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교정행정 체제 개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념적 보편성이 인정받고 있는 남한의 행정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행정통합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적으로 통합 교정행정을 관할하고 관리할 조직과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정상규, 2022, p121).

독일은 기존 시설 활용을 우선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경우 신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대형 교도소보다는 적정규모 수용(UN이 권고한 300-500명 이내)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하태영, 2006). 통일 후 북한지역 교정정책의 방향은 전체 통일비용의 인적, 물적 상황을 고려하고, 수요예측을 한 다음, 지역별 신축 및 시설 보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험과 역량이 많은 교정공무원은 재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정상규, 2024, p131).

V. 결론

통일은 분단으로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조화로운 민족공동체를 구현시킨다는데, 목적이 있다. 그중 통일 후 혼란한 사회분위기를 격었던 독일, 베트남, 예멘을 비롯한 동서고금의 역사와 사례를 살펴보면, 남·북 교정행정의 통합은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통일방안이라고 본다. 북한에는 한국의 ‘형집행법’과 같은 수용자 처우에 관련된 성문의 절차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통일 후 북한지역 교정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구금시설 관리자의 의무와 피구금자의 권리가 명시된, 피구금자에게 용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성문의 교정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피구금자의 인권을 보호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중국과 베트남의 교정정책은 노동을 통한 범죄인의 정신 개조와 행동 교정을 교정정책의 목적으로 삼고 있고, 교정교육에 있어서 사상적, 이념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다자간 경제적·외교적 협력을 통한 공존과 번영의 관계 설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서 인도적 협력의 댓가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피구금자 처우에 대해 ‘자유권 규약’과 ‘UN 피구금자 처우 준칙’을 반영한, 국제사회가 용인하는 수준의

교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북한의 통일 역시 독일 통합의 사례처럼 남한의 민주주의가 붕괴된 북한의 사회주의에 이식될 것이라는 합리적 가정하에 동·서독 교정행정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의 하나인 출신 지역에 따른 내부 갈등과 신·구세대 간의 심리적 갈등 등의 현상이 북한지역에서도 역시 동일한 문제점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한 출신 공직자를 북한 교정시설의 기관장으로 교체하기에 앞서, 남한 교정당국 소속의 파견 교정공무원이 북한 교정시설 현장에 상주하며 규정에 입각한 수용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지켜보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코치하는 ‘상주 감독관제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북한지역 교정시설의 기존 관리인력 중 재임용 적임자에 대한 승진 필요조건으로 남한 교정시설에서의 선택적 파견근무 및 실무교육 이수 후 현지 관리인에 대한 전달 교육을 실시케 하는 ‘실무수습 파견근무 기간’ 이수제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통해 통일 후 북한지역 시설운영의 합리성과 직업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민주주의 국가 이념의 통합 사례인 독일의 교정정책이나 사회주의국가 이념의 통합 사례인 베트남의 교정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국가의 중주국으로 불리고 있는 중국의 교정정책 사례들은 남·북한 통일국가가 추진하는 통합 교정정책의 목표 설정에 참고는 될 수 있겠으나, 정작 유사한 전략을 벤치마킹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한민족 79년의 분단의 역사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보기 드문 사례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통일이 어떠한 형태이든 통일국가의 통합 교정정책의 방향은 피구금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자유권 규약’제10조를 존중하고 ‘UN 피구금자 처우 준칙’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히 귀결되어야 할 현시대 상황이다.

또한 교도소 정책의 통합은 앞서 독일통일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가정하에 통합의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남한의 정책 수준이 우수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북한지역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사고는 현실적 측면을 바로 보지 못하는 자세라고 생각된다.

현재 남한에는 통일교육원 등이 있으나 북한수용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관한 축적된 자료의 부족 등은 연구의 한계와 제한점이 되었다. 예멘과 베트남의 교정관련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추후에는 그 나라의 대사관이나 정부, 국가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김국신 등,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의 동향과 북한의 대응’, 통일연구원.
김문태, (2016), ‘통일과정에서 형사사법통합의 문제점연구, 교정행정 통합방안을중심으로’, 통일정책지도자
과정 정책연구과제, 통일부 통일교육원.,
김안식, (2005), ‘북한의 구금시설 및 행형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행정학회.
_____, (2009), ‘북한의 구금시설 및 행형제도에 한 고찰’, 교정담론 제3권 제1호, 2009, 107.
김용현외, (2022), ‘북한학 개론’, 동국대학교 출판부, 서울.
남준락, (2015), ‘통일한국의 교정교화정책 연구’, 법무부 교정기획과.
남재성, 차훈진, 박소영, (2005),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5 대학원 연구논집, 동국대학교 대학원.
데이빗 호크, (2006), ‘잔인함의 집결’, 도서출판 시대정신.
민낙기, (2019), ‘통일 후 북한 교정시설 개선방안’. 통일법제 연구자료, 법무부
문영희, (2007), ‘비행청소년 증가에 따른 교정복지 활성화 방안’, 한국교정복지학회, 2007.06.01., 서울.
박광식, (2011), ‘통일 후 남북한 교정행정 통합방안’, 통일교육원, 제6기 통일미래지도자과정 정책 연구 과제.
_____, (2013), ‘통일 후 남북한 교정행정 통합방안’, 법무부 교정본부, 2012. 02.29
_____, (2016), ‘통일을 대비한 북한수용소의 합리적운영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논문.
신용해, (2019),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방안 上·下’, 법무부 교정본부.
신의기, 박학모, 이경렬, (2010), ‘통일대비 북한범죄자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
송은희, (1969), ‘통합이론’, 유럽경험의 동북아지역적용 유럽연구.
서 민, (2019), ‘남·북한 교정시설 처우제도 비교분석 및 북한지역 교정정책 방향에 대한제언’, 2020.12.15.
석우찬, (2020), ‘독일통일 후통합교정운영에관한연구’, 법무부, 2020. 06.03.
와다하루끼, (2014), ‘북한 현대사’한국어판 주, 창비출판사, 옮긴이 남기정, 파주.
이철성, (2000), ‘통일대비 남·북한 경찰통합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상규, (2024), ‘남·북한 교정행정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_____, (2016), ‘한민국의통일 후 남·북한 교정행정 통합방안’, 교정 복지연구.
_____, (2019), ‘남·북 통일시대 교정복지의 방향에서 북한의 법과제도’, 교정복지연구.
_____, (2022), ‘통일대비 남북한 교정행정 개선 방향 : 북한 이탈 수용자와 남한 재소자를 중심으로’,
한국교정복지학회, 2022. 6. 30.
_____, (2022), ‘통일대비 남·북한 교정처우제도 비교분석 및 교정정책에 대한연구’, 교정복지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2022. 10. 31.
최옥채, (2001), ‘남·북한교정복지에 관한 비교연구- 교정복지의 구성체계와 작동원리를 중심으로’,
한국교정학회,교정연구, 제12호 311-343.
하태영/오광호, (2005), ‘통일 후 북한지역 교정정책’, 한국교정학회 동계학술대회.
_____, (2006), ‘통일 후 북한지역 교정정책-동·서독 사례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제30호,
허문영/이정우, (2010),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발행, 통일연구원, 201.
코엘랜드루, (2003), ‘교도소 관리에 대한 인권적 접근’, 주한 영국대사관.

■ 외국문헌

Akers, R. & C. Sellers/민수흥, 박기석, 박광우, 기광도, 전영실, 최병 각역.〔2009〕. 「범죄학 이론」 제5판
나남출판.
Amire, Y. & R. Ben-Ari. (1985). International Tourism, Ethnic Contact, and Attitude Change. Journal of
Social Issuee, 41(3) : 105-115.
Amire,Y. (1969). Contact Hypothesis in Ethnic Relations. Psychological Bulletim, 71:319-342.
Creswell, W.(1994).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Thousand O만, CA: Sage. 조홍식 외 역 (200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전통. 서울: 학지사.
Cushner. (1986), Nicholas P American Historical Review 1986/Feb86, Vol. 91 Issue 1, p220
Flanagan,T.j. (1980), the pains of long term imprisonment: a comparison of Brith and American
Perspectives, British Journal of riminology,vol.20, no. 2.
Hall, J. M. Williams & L. Tomaino. (1996). The Challenge of Correctional Change, 57 The journal of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
HM Inspectorate of, Foreign national prisoners: a thematic review. 2006.
HM Inspectorate of, Foreign national prisoners: a follow-up report2007, Office of Drugs and Crime,
handbook on orisoners with Special Needs, New Yo가: United Nations. 2009.
Jackman, M. R. & Crane, M. (1986). Some of my best friends are black interracial friendship and
whites’racial attitudes. Public Opinion Quarterly. 50:459-86.

■ 기타자료

북한인권정보센터, (2015), ‘북한구금시설총서’,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총서.
통일부, (2009), 통일교육원, ‘북한의 통알방안 고려연방제’
교정국 홈페이지, <http://www.corrections.go.kr>, [http://www.hmprisonservice.gov.uk/resourcecentre/
publicationsdocuments/](http://www.hmprisonservice.gov.uk/resourcecentre/publicationsdocuments/)
형사정책연구원, ‘통일 후 북한지역에 대한 불법청산 및 범죄자 처리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98-08.

성폭력사범의 인문융합치료 기반 —— 교정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상)



김진선
인하대학교 인문학술연구교수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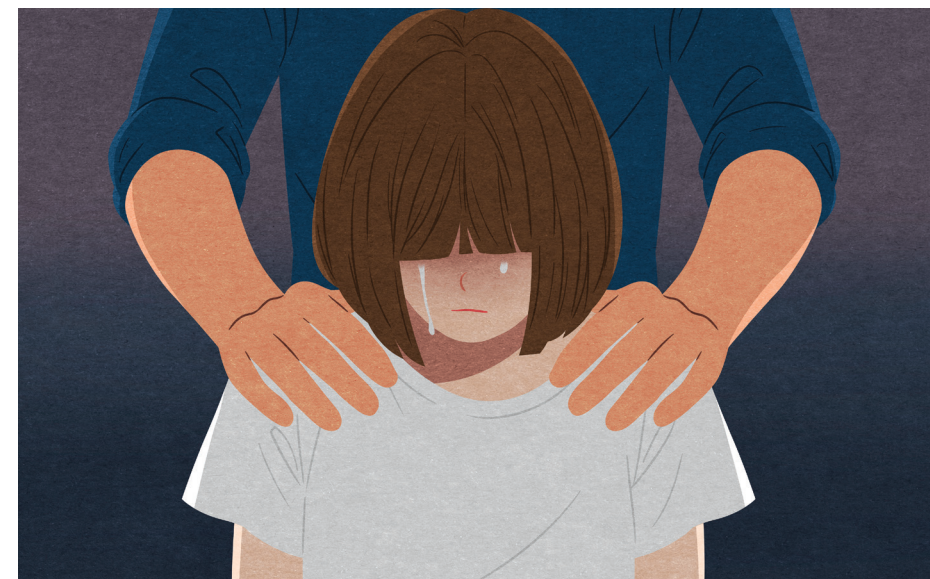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성폭력사범들의 인문융합치료 기반 교정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교정시설에 수감된 성폭력사범 4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참여자의 수기 기록물, 그림, 활동지, 연구자 노트 등을 자료로 수집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내면 성찰과 반성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정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며, 삶의 변화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가족 내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소통과 경청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관계 회복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경계 침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성범죄와 관련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았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강화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결심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문융합치료 기반 프로그램이 재범 방지와 사회적응력 향상에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폭력사범 교정 및 재활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재범 방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교정시설, 성폭력, 교정프로그램, 인문융합치료, 질적연구



I. 서론

성폭력 범죄는 성(性)을 수단으로 개인의 존엄과 인격을 침해하는 심각한 폭력이다. 이러한 범죄는 직접적인 피해자인 개인과 그 가족에게 심각한 심리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성폭력사범들은 범죄를 부인하거나 합리화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윤지인, 이홍숙, 2021), 이는 교정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출소 후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성폭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38,129건이었던 성폭력 범죄는 2022년 47,178건으로 증가하였으며(법무부, 2024), 특히 N 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폭력 등 범죄 형태는 다양화되고 심각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2.6%가 성폭력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그러나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책임 전가의 인식이 남아 있어(권인숙, 2015), 이는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사회적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8년 8세 여아 성폭행 사건(한겨레, 2009. 10. 25), 2016년 섬마을 학부모 강간 사건(연합뉴스, 2019. 04. 10), 그리고 N번방 사건(경향신문, 2021. 10. 14.) 등이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되며 심각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437건이었던 디지털 성범죄는 2022년 10,563건으로 약 7.4배 급증하였다(경찰청, 2024). 수사기관은 성폭력 범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교정시설 내 수감자들이 출소 후 재범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정 및 재범 방지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교정시설에서는 2012년부터 성폭력사범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치료를 확대해왔다(김근국, 유철민, 2016). 2016년부터 법무부는 기본, 집중, 심화의 세 단계로 구성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주로 인지행동치료(Cognitive-Behavioral Therapy, CBT)를 기반으로 성폭력사범들의 왜곡된 사고를 교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송원영, 2007; 신기숙, 2016). 그러나 대상자들의 낮은 참여 동기와 심리적 개방성 부족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이며, 기존의 연구는 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심리적 개입 과정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김정내, 이종연, 2017; 윤지인, 이홍숙, 2021).

성폭력사범들은 사건에 대한 수치심과 타인의 비난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문제를 개방하거나 반성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윤정숙, 이수정, 2012). 이러한 특성은 언어적 접근만으로는 적극적 참여와 자발적 개방을 어렵게 만들며, 이를 보완

하기 위해 비언어적 치료적 접근을 포함한 새로운 개입 방식이 필요하다. 미술, 연극, 문학, 음악 등의 인문학적 요소를 융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성폭력사범들이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공감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주희, 2018). 특히, 글쓰기와 미술과 같은 접근은 수용자들이 대화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면의 경험을 탐색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동시에 심리적 치료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강은숙, 최은영, 공마리아, 2008; 고명수, 2010).

교정시설에서는 2013년부터 미술, 종교, 문학,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인문학적 요소를 활용한 교정인문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주로 인성 교육에 중점을 두어 심리적 개입이나 치료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Humanities) 요소를 접목한 심리치료(Psychotherapy)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권요셉, 2021; 김도경, 2024; 김진선, 2022; 김진선, 김영순, 2024; 오영섭, 2019). 이 접근법은 내담자가 자신의 서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내면 탐색과 정서 표출을 통해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인문융합치료는 공존 인문학의 개념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의 고통을 치유하고(김영순 외, 2022), 범죄자가 재범 없이 사회로 복귀해 타인과 공존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접근은 성폭력사범들이 자신을 ‘공존적 존재로서의 나’로 인식하게 하여 재범 예방과 사회적 재적응을 촉진하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성폭력사범들이 인문융합치료 기반 교정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범 방지와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성폭력사범의 인문융합치료 기반 교정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성폭력사범의 인문융합치료 기반 교정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성폭력사범의 특성

성폭력사범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심리적 및 행동적 특성은 성범죄의 발생과 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특성에는 낮은 자존감, 인지적 왜곡, 공감능력 부족, 성적 강박과 일탈적 성적 기호, 그리고 정서조절의 결함 등이 포함된다.

첫째, 낮은 자존감은 성폭력사범들의 핵심적인 심리적 특성이다. 자존감(self-esteem)은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Rosenberg(1965)는 이를 긍정적

자존감과 부정적 자존감으로 나누었다. 긍정적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반면, 부정적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 과정에서 폭력과 학대 경험을 겪은 이들은 낮은 자존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노충래, 2002), 이는 사회적 부적응과 우울감을 유발하여 범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추호정, 2000). 윤지인과 이홍숙(2021)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청소년들이 폭력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낮은 자존감이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와 범죄 성향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정프로그램은 낮은 자존감을 개선해 재범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Oser, 2006).

둘째, 성폭력사범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성은 인지적 왜곡이다. ‘인지적 왜곡’은 성폭력 범죄 논의에서 오래전부터 다루어져 왔으며, 성폭력 범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Hanson, 1998). 성폭력사범들은 부인(denial), 축소(minimization), 합리화(rationalization) 등의 인지적 왜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다(윤지인, 이홍숙, 2021). 이들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1차 인지 왜곡을 일으키고, 범죄 행위를 지속하며 자신을 지지하는 2차적 왜곡을 강화한 후, 최종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3차적 인지 왜곡을 거친다(Hanson, 1998). 이석재와 최상진(2001)은 성폭력사범들이 피해자의 저항을 동의의 표시로 왜곡하거나, 자신이 피해자의 유혹을 받았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셋째, 성폭력사범들은 공감능력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Fernandez 외, 1999). 공감 능력은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친사회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성폭력사범들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가해행위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Fernandez 외, 1999). 성장 과정에서 방치, 학대, 폭력을 경험한 이들은 낮은 자존감과 함께 공감능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성범죄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신기숙, 2011).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성폭력 범죄로 보호 관찰 중인 가해자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피해자에 대한 공감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송원영, 2007).

넷째, 성폭력사범들은 일탈적 성적 기호와 성적 강박을 보인다. 이들은 변태적이고 비정상적인 성적 환상을 가지고 있으며(서호영, 2019), 성적 강박 성향이 높아 일탈적 성생활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Hanson & Morton Bourgon, 2019). Groth & Birnbaum(2013)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성폭력사범의 3분의 1은 성기능 장애를 겪고 있으며, 성범죄의 원인이 단순히 성적 충동이 아니라 상대를 지배하고자 하는 망상적 욕구에 비롯된다는 점이 나타났다. 이들은 상대방을 통제하고 전능감을 느끼

려는 성향을 가지며, 가학적인 행동을 일삼아 이를 범죄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다(Seto 외, 2008).

마지막으로, 성폭력사범들은 정서조절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충동성이 높다. 충동성은 신중함이 결여되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말하며, 이들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성행동으로 이어지기 쉽다(장미연, 2006).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성적 충동을 표출하며, 이는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Ward 외, 1995). 이와 같이 성폭력사범들은 낮은 자존감, 인지적 왜곡, 공감능력 부족, 성적 강박, 정서조절의 결함이라는 특성을 보이며, 이러한 특성은 가해자들의 범죄 행동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성폭력사범 치료프로그램 선행연구

Hanson(1998)은 심리치료를 받은 성폭력사범 5,078명과 치료를 받지 않은 4,376명을 대상으로 출소 후 재범률을 조사한 결과, 치료를 받은 집단에서는 12.3%의 재범률을 보였고, 치료를 받지 않은 집단에서는 16.8%가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Lösel와 Schmucker(2008)는 치료를 받은 성폭력사범들이 치료를 받지 않은 성폭력사범들보다 37% 낮은 재범률을 보여, 심리치료프로그램이 성범죄 재범률을 낮추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보호관찰소에서 처음 성범죄 치료프로그램이 시행되었고, 2006년부터 교정시설에서도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한 치료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했다(김정내, 이종연, 2017). 2024년 기준 교정시설 내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성폭력사범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인 STATIC-99R과 HAGOS-S의 결과와 법원의 이수 명령 시간에 따라 기본, 집중, 심화 과정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이 과정들은 <표 1>과 같이 대상자 선정기준과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적용 된다.

<표 1>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대상군 및 구분과정

구분	과정	대상자 선정기준	운영 시간
성폭력사범	기본	이수명령 80시간 이하, 재범 위험성 평가 低	60시간
	집중	이수명령 80시간 초과, 120시간 이하, 재범 위험성 평가 中	100시간
	심화	이수명령 120시간 초과, 재범 위험성 평가 高	300시간

자료: 성범죄자 치료 수강명령 전문프로그램 매뉴얼(법무부, 2015)의 재구성

국내 교정시설에서 운영되는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주로 인지행동치료(CBT)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윤정숙, 이수정, 2012). 그러나 성폭력사범들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강한 저항을 보이며, 이로 인해 인지행동치료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인문학적 요소를 융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최신현과 김갑숙(2016)은 교도소 내 성폭력사범들이 집단 미술치료에 참여할 때 공감능력이 향상되고 강간 통념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강준기(2015)는 집단 미술치료를 참관한 교도관들이 성폭력사범들의 미술활동이 심리적 과제를 해소하고 치료 참여도를 높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정여경 외(2022)는 비대면 글쓰기를 통한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연구에서 글쓰기를 통해 잘못된 강간 통념을 수정하고 심리적 불편감을 완화하며 프로그램 참여 반응성을 높이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윤일수(2015)는 소시오드라마를 활용한 연구에서 성폭력사범들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통을 이해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인문융합적 요소를 융합한 심리치료가 성폭력사범의 공감능력 향상, 왜곡된 성적 통념 수정, 심리적 안정에 효과적임을 보여주며, 이를 통한 성범죄 재범 방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3.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

인문융합치료에서 ‘치료’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로(Beekes, 2010), 증상을 단순히 고치거나 처치할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숨겨진 부분을 드러내고 통합하는 과정으로 바라본다. 이는 기존의 ‘병=증상=약’이라는 단순한 질병 관점을 넘어, 내담자가 왜 삶의 조화와 균형을 잃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그 원인을 찾아 회복 방법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김도경, 2024). 따라서 인문융합치료는 단순히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생애 전반, 사회적 환경, 그리고 내면의 역동적 과정을 포괄적으로 조망하며 더 깊은 이해와 통합을 지향한다.

인문융합치료에서 중요한 개념은 ‘공존’이다. 공존은 갈등, 협동, 교환 등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괄한다(김영순 외, 2022). 이러한 공존의 개념은 내담자가 자기 내러티브를 통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조화로운 삶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인문융합치료에는 문학, 시, 이야기, 연극, 음악 등 다양한 인문학적 매체를 활용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서사를 풀어내고, 그 과정에서 자기내러티브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다(김진선, 김영순, 2024). 인문융합치료는 내러티브 상담이나 글쓰기 상담에서 활용되는 치료적 기제와 맥락을

공유하며(김도경, 2024), 개인의 경험을 구조화하고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접근이다. 그러나 인문융합치료는 단순히 기존의 기법을 차용하는 것을 넘어, 인문학적 요소를 융합하여 내담자의 경험을 사회적 맥락과 연결하고 공존과 조화(Bruner, 1986)라는 인문학적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며(MacIntyre, 1985),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를 새롭게 정의하고 사회적 책임과 적응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내러티브는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을 재구성하는 주요 도구로 작용한다(Bruner, 1986). 내러티브는 무질서하게 발생한 사건들을 연결하여 경험을 재조직하고, 이를 통해 고정된 의식을 해체하여 치유의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Clandinin & Connelly, 1990). 인문융합치료는 내담자가 자기내러티브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성찰하며,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돕는다(김영순 외, 2022). 이는 개인적 변화를 넘어 타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삶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중점을 둔다.

인문융합치료는 성폭력사범들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사회에 건강하게 재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정의 중요한 목표와 연관된다. 교정 현장에서 상담자는 교육자, 상담자, 감독자로서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인문융합치료에서는 특히 상담자가 청자, 조력자, 멘토로서 내담자의 내러티브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김도경, 2024). 상담자는 내담자의 서사를 단순히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치유적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담자는 서사적 글쓰기 훈련을 통해 내담자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치유적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김영순, 오영섭, 2022). 인문융합치료는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닌, 내담자가 자신의 내적 자원을 발견하고 삶을 재구성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치유적 과정에 중점을 둔다. 내담자와 상담자는 상호주체적 관계를 형성하며, 이러한 관계는 내담자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적응을 촉진한다. 따라서 인문융합치료는 성폭력사범들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타인과의 공존을 통해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질적 사례연구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서 성폭력사범들이 인문융합치료 기반 교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질적 사례

연구는 특정 맥락과 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이해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구체적인 경험을 구체적이고 다각도로 분석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Creswell, 2015). 본 연구는 교정시설이라는 제한된 공간과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이라는 체계를 중심으로, 사례가 전개되는 과정을 관찰하고 참여자들의 경험과 내러티브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질적 사례연구는 구체적인 상황, 사건,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석하며,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현상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김영순 외, 2018).

본 연구에서는 관찰, 인터뷰, 문서,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을 통해 참여자들의 경험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성폭력사범들이 프로그램 참여과정에서 겪는 내적 변화와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교정적 환경과 개인적 성찰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질적 사례 연구는 성폭력사범의 참여 경험과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접근법이며,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내러티브와 그 변화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2. 연구참여자와 프로그램

1) 연구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20대에서 30대 남성 성폭력사범 4명을 연구참여자로 하여 수행되었다.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연 80시간 이하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대상으로, 수감 이후 교정시설 내에서 교정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인문융합치료 기반의 교정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각 참여자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2> 연구참여자 특성

연구참여자	연령	수감 전 직업	형량	학력	범수	성범죄 종류
A	20대	회사원	징역 1년	고등학교졸업	초범	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
B	30대	회사원	징역 6월	고등학교졸업	초범	준강제추행
C	20대	무직	징역 1년	고등학교졸업	초범	미성년자의제강간
D	20대	간호사	징역 2년	전문대학졸업	초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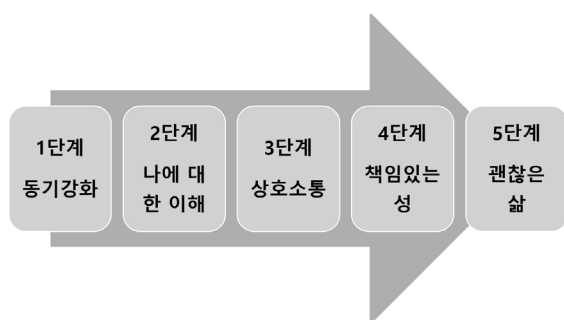
연구참여자 A는 다문화가정에서 성장하며,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인해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세 때 부모가 이혼한 이후 중국인 친어머니와 생활하였으며, 어머니는 A가 초등학교 시절 재혼하여 한국인 새아버자와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A는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위법행위에 연루되는 경험을 했다. 이 과정에서 성(性)과 관련된 왜곡된 정보와 부적절한 경험을 접하였고, 이러한 환경이 범죄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범행 당시, 왜곡된 성(性)적 인식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B는 5세 무렵 부모가 이혼한 이후 어머니와 외할머니와 함께 생활하였다. 중학생 시절 힙합 음악에 관심을 가졌으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음악 활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였다. 이후 직장 내에서는 성실한 근무 태도로 상사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생활해 왔으나, 대인관계에서 감정 표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였다.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 상태로 인해 감정 조절 능력이 저하되었고 이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C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아버지의 구타와 폭언을 경험하며 성장하였고, 어머니는 이러한 폭력을 방관하였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집을 떠나 독립하였지만, 어린 시절의 폭력 경험이 여전히 심리적 어려움으로 남아 있었다. C는 폭력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이나 정서적 표현에 어려움을 겪었다.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으며, 이러한 왜곡된 인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D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집을 떠나고 아버지, 여동생,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왔다. 아버지와 조모 간의 갈등 속에서 가족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왔으며, 학창 시절에는 모범생으로, 대학 시절에는 과대표를 맡으며 주변의 신뢰를 받았다. D는 평소 가족 내 책임감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해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핸드폰을 이용해 촬영하는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가정환경과 성장 경험 속에서 심리적 특성과 삶의 태도를 형성해 왔다.

2) 성폭력사범 인문융합치료 기반 교정프로그램

본 연구의 성폭력사범 인문융합치료 기반 교정프로그램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성폭력사범의 심리치료를 위해 설계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성폭력사범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문제행동을 성찰하고 내면의 분열된 자아를 통합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내에서의 건강한 재적응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인 자아통합(Erikson, & Erikson,

2019), Savickas(2011)의 진로스토리 인터뷰(Career Story Interview, CSI), 그리고 Rollnick, Miller, Butler(2008)의 동기 강화 상담 이론을 주요 이론적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법무부 교정본부의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매뉴얼(법무부, 2015)과 인문융합치료 진로프로그램(김진선, 2022)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감수성 함양, 성찰적 태도의 형성, 재범 방지 역량의 강화를 실행 목표로 설정하였다. 성폭력사범 심리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성폭력사범 인문융합치료 기반 교정프로그램 모형



본 프로그램은 총 5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는 성폭력사범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기성찰과 성숙한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1단계(1~2회기)**는 ‘동기강화’로, 가해자가 내면을 탐색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며, 행동변화에 대한 동기를 강화한다. 이는 동기강화 상담(Rollnick, Miller, Butler, 2008)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내면의 양가감정을 탐색하고 해결하도록 돕는다. god의 노래<길>¹⁾ 영상 감상과, 솔라리움 카드²⁾를 통해 자신의 생애 전반적 흐름을 탐색한다. 이를 통해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친 영향을 자각하고 변화의 동기를 내면화하게 된다. **2단계(3~8회기)**는 ‘나에 대한 이해’로, 자아통합(Erikson & Erikson, 2019)을 중심개념으로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심리적 상태를 깊이 이해하도록 한다. MBTI검사와 인생그래프 작성 등의 심리도구를 활용하고, 동물 이미지로 자신을 표현하게 한다. 또한 가족 내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활동을 통해 자기이해를 확장한다. 특히 잘못된 성(性)인식이 범죄로 이어진 과정을 성찰하게 하여,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한다. **3단계(9~12회기)**는 ‘상호소통’으로, 건강한 의사소통 기술과 공감능력을 학습하여

1) 삶의 어려움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곡으로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내용이다.
2)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개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성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이다.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왜곡된 사고방식을 교정한다.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Goffman, 1959)과 의사소통 이론(Habermas, 1987)을 적용하여 관계기술을 강화한다. 가해자들은 짝을 지어 달팽이화를 그리고, 정서 보드게임을 하며 편안한 거리감을 체험하고,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는 연습을 통해 건강한 소통 방식을 배우고, 타인과의 적절한 거리감을 체험하며 관계기술을 습득한다. **4단계(13~18회기)**는 ‘책임 있는 성(性)’으로, 성(性)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피해자 감수성을 함양한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공감 학습 이론을 적용하여, 성적행동의 윤리성을 재구성한다. 성 관련 영상시청, 동화 읽기와 토론, 공감 카드 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행위와 의도를 맥락상 이해하고, 피해자에게 저항 입증 책임을

<표 3> 성폭력사범 인문융합치료기반 교정프로그램

단계(회기)	주제	세부 내용
1단계 동기강화 (1~2)	프로그램 및 자기소개 목표세우기	- 프로그램 소개 및 규칙 정하기 - 별칭 정하기 및 소개하기 - god <길>듣기 - 솔라리움 카드를 활용하여 목표 설정 및 공유 - 회기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2단계 나에 대한 이해 (3~8)	자기(나와 가족)탐색 및 이해	- 윤도현 <나는 나비> 듣고 나를 동물로 표현하기 - MBTI 검사 및 자기 이해 공유 - 동화 <기다립니다>를 읽고 정서 공유 - 인생그래프 및 카드를 활용한 가계도 작성 - 회기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3단계 상호소통 (9~12)	소통 및 경계존중	- 달팽이화 그리고 정서 공유 - 상호소통게임(딕식 보드게임) - 경계의 중요성 경험 및 토론 - 회기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4단계 책임있는 성(性) (13~18)	성(性)인지 감수성 및 공감 체험	- 성(性) 관련 영상 청 및 OX퀴즈 - 동화<색깔을 찾는 중입니다> 읽고 생각해보기 - 성인지 감수성 그림 표현 및 나누기 - 공감 카드 활용 및 감정 탐색 - 피해자(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영상시청 및 감정 탐색 - 회기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5단계 관참은 삶 (19~24)	강점발견 및 삶의 계획	- 장점카드 활용 및 감정 발견 - CSI 진로 구성 및 새로운 목표 설정 - 자신의 삶 글로 표현하기 - 프로그램 종결 감정 나누기

전가하는 관행이 부적절함을 깨닫는다. 5단계(19~24회기)는 ‘괜찮은 삶’으로, 가해자가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균형 잡힌 삶을 계획하도록 돕는다. Savicas(2004)의 CSI³⁾를 활용해 내러티브를 재구성하며, 자아통합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조망을 형성한다. 긍정적 피드백, 장점 카드 교환, 내러티브 글쓰기를 통해 삶의 서사를 재구성하고 성찰적 태도를 형성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의 <표 3>과 같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프로그램은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교정시설에서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기본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총 24회기(회기 당 2시간 30분)로 구성되었으며, 하루 2회기씩 12일간 총 60시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교정시설의 특성상 녹음과 녹화가 제한되어 있어, 연구팀은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모든 회기 내용을 수기로 기록하였다. 주요 자료로는 연구참여자의 한 문장 쓰기 기록물, 그림, 활동지와 함께 연구자 노트 등을 활용하였다.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성폭력사범들의 인문융합치료 기반 교정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reswell(2015)의 질적연구 분석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되었다. 1단계는 자료 정리로 연구팀은 기록물, 관찰기록, 연구참여자의 활동물 등을 분석에 용이하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2단계는 일반적인 자료분석으로 수집한 자료를 여러 번 읽고, 연구문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이나 경험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메모하고, 이 과정에서 참여자의 구체적인 표현과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며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다. 3단계 코딩 및 주제 도출에서는 자료를 분류하고, 핵심 내용에 기반하여 코드를 부여하였고, 유사한 특성을 가진 코드를 묶어 주제를 구성하였다. 4단계 영역 범주화에서는 주제를 포괄하는 상위 범주를 설정하여, 구조화하고, 연구결과를 체계적인 틀로 정리하였다. 마지막 해석단계에서는 교정시설 내 성폭력사범의 재사회화 과정과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각 영역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기술하였다.

3)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주제와 진로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는다.

4. 연구윤리와 신뢰성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특수한 환경과 비자발적 프로그램 참여 상황을 고려하여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연구팀은 교정시설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비밀 보장, 자발적 참여 여부, 참여 철회 가능성과 철회 시 불이익 없음 등을 명시한 동의서를 제공하고 서명을 받았다. 또한 참여자가 불편함을 느낄 경우 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여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처리하였다.

본 연구팀은 인문융합치료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다수의 질적연구와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 사례 경험을 가진 전문심리상담사 1인, 중독심리 전문가이자 인문융합치료 전공 박사과정생 1인, 상담심리 전공 박사과정생 1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팀은 내부 상호 검토와 외부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해 자료해석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였다.

또한 상담심리 전공 교수의 수퍼비전을 통해 연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탐색해야 할 내용을 반영하고, 프로그램의 구조와 일관성을 보완하였다. 예를 들어, 1단계인 동기강화단계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활동이 구성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관점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프로그램이 가해자의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두는 가해자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상, 가해와 피해의 실체(범죄)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가해자의 삶의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에 대한 윤리적 고민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시선에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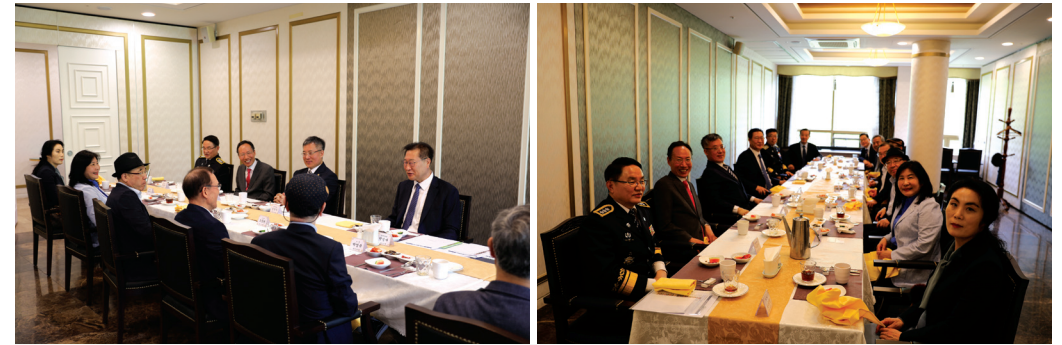
▶ 다음 호에 이어서

법무부 장관, 강릉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일시·장소 5. 16.(금) 14:30, 강릉(교)
참 석 자 법무부 장관, 교정본부장 등
주요 내용 교정시설 과밀수용 및 작업장 안전관리 현장 점검 등

법무부-한국교정학회 정책간담회 개최



일시·장소 5. 20.(화) 11:30, 국무위원식당
참 석 자 • 법무부 : 장관, 차관, 교정본부장, 교정정책단장
 • 한국교정학회 : 고문 조준현 등 9명
주요 내용 교정 관련 주요 정책현안 및 실무협력 방안 등 논의

기동순찰팀 워크숍 개최 계획(안) 보고



일시·장소 5. 19.(월)~5. 20.(화), 한화대천파로스(충남 보령시)
참 석 자 • 교정본부 : 보안정책단장 등 6명
 • 소속기관 : 서울(청) 교감 이현성 등 72명
주요 내용 • 인권 사고사례 교육 및 추진 업무 공유
 • 직무스트레스 치유 프로그램 진행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제10차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장소 5. 22.(목) 14:00, 법무부 대회의실(7층)
방 문 자 • 외부위원 : 위원장 임대기 등 7명 • 내부위원 : 보안정책단장
주요 내용 • 교정공무원 스트레스 회복, 지원을 위한 실태분석 및 직무스트레스 관리 방안 마련 발표 및 질의응답
 • 회의 안건 토의 및 자문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박소영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지난 5월 14일 수원시 연회장에서 수원구치소, 안양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원·평택지소 등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용자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한 교정위원들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서울구치소 | 교위 임완섭

직원 가족 초청 참관행사 개최

서울구치소는 지난 5월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직원 가족을 초청, 참관행사를 개최했다. 총 195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교정 시설 참관, 호송버스 및 교정장비 체험 등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교정직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안양교도소 | 교사 현민준

2025년 상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안양교도소는 지난 5월 16일 2025년 상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무연고 출소자 신병처리 및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방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신뢰받는 투명한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수원구치소 | 교사 안태진

직원 가족 초청 참관행사 실시

수원구치소는 지난 5월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직원 가족을 초청해 '교정가족 참관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약 80명의 직원과 가족들은 이날 구내 참관과 보호장비 체험 등을 통해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유희지

가정의 달 맞아 직원 가족 초청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5월 14일 가정의 달을 맞아 직원 가족을 초청했다. 이에 90여 명의 가족이 참석했으며, 시설 참관, 호신술 시연, 교정장비·호송버스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함께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인천구치소 | 교위 이동훈

가족 참관 '패밀리데이' 개최

인천구치소는 지난 5월 15일 가정의 달을 맞아 직원 가족과 함께하는 '패밀리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직원 46명과 가족 105명이 참여했으며, 가족 인터뷰 영상 상영을 통해 교정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도 이성환

직원 가족 초청 및 참관행사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5월 9일, 직원 가족을 초청해 참관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직원 38명을 포함해 총 146명의 가족이 참여했으며, 교정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겼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오근섭

사랑나눔 '래찬차' 프로그램 진행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5월 14일 인근 '두리하나 지역아동센터'와 '푸른자리 지역아동센터'를 방문, '래찬차'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직업훈련교사의 지도 아래 직업훈련생들이 정성껏 만든 빵을 기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한창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과 업무협약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5월 23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과 함께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의정부병원은 의정부교도소 직원과 그 가족에게 종합검진 프로그램과 장례식장 시설 사용 시 일정 부분 감액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여주교도소 | 교사 남형인

천주교 수원교구와 구내참관 및 견진성사 행사

여주교도소는 지난 5월 20일 천주교 수원교구와 함께 구내참관 및 수용자 견진성사 행사를 진행했다. 문희중 요한 세례자 주교가 참석, 견진성사를 집전한 이번 행사는 수용자들에게 신앙을 통한 내면의 성장과 치유를 지원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위 정한길

지역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참관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지난 5월 13일 서울남부지역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17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은 직업훈련장·독거수용동·만델라 소년학교 등의 시설을 둘러보며 교정행정과 교정시설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춘천교도소 | 교도 남운성

문화악극으로 수형자 정서 순화 도모

춘천교도소는 지난 5월 22일 수형자들의 안정된 수용생활 유도를 위해 문화악극공연을 진행했다. 푸른줄 선교회의 후원으로 성사된 이번 공연은 문화악극공연을 통해 수용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원주교도소 | 교도 이동환

체육행사로 소통·화합의 장 마련

원주교도소는 지난 5월 13일 원주교도소 직원 합동 체육행사를 실시했다. 줄다리기, 팔씨름, 제기오래차기, OX퀴즈왕 등에 선전을 포함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조관성 소장을 비롯한 직원 160여 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강릉교도소 | 교위 채동용

법무부 장관 정책 현장 방문 영접

강릉교도소는 지난 5월 16일 법무부장관의 정책 현장 방문을 영접했다. 이번 방문은 교정시설의 운영 현황점검, 수용 실태 등 현장점검, 그리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설을 둘러본 법무부 장관은 '작업중 안전관리'와 '교정사고 예방'을 특별히 당부했다.

영월교도소 | 교사 김한

영월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 실시

영월교도소는 최근 영월소방서와 함께 2025년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자위소방대의 임무와 소화기 및 소화전 등 장비 사용법을 숙지하고, 체계적인 화재진압 절차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사 성명제

우즈베키스탄 국제연수과정 연수생 참관

강원북부교도소는 지난 5월 22일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및 법무연수원 관계자 20명에 대한 참관행사를 가졌다. 업무 소개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중앙통제실·접견실·자치수용동·직업훈련장 등의 시설을 둘러보는 것으로 진행됐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박세영

전직원 대상 의료기기 사용 교육 진행

수원구치소는 지난 5월 7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사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수용동에 새롭게 도입된 의료기기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소망교도소 | 주임교도관 박성호

15년 세례 여정, 교화의 길 이어간다

소망교도소는 지난 5월 22일 상반기 세례식을 열고 33명의 수용자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2010년 개소 이후 지금까지 560여 명의 수용자에게 세례를 제공해 온 소망교도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세례식을 통해 수용자 교화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태도

소속 직원 대상 청렴 교육 실시

대구지방교정청은 지난 5월 20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내용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련 법령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위반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가정의 달 맞아 온기 나눔 활동 진행

대구교도소는 지난 5월 8일 자매결연 마을인 달성군 하빈면 감문 2리를 방문, 위문금과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주민들과 소통하는 온기나눔 활동을 펼쳤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의 정서적 유대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부산구치소 | 교사 손태우

주례119안전센터와 합동 소방훈련 진행

부산구치소는 지난 5월 14일 주례119안전센터와 합동 소방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진압, 인명대피, 응급조치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남준락 소장은 "이번 훈련이 실제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최송락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참관행사 개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지난 5월 14일 가정의 달을 맞아 직원 가족 115명을 초청, 교정시설 참관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영상 시청과 청렴 정책 OX퀴즈, 시설 견학 및 소방 장비 체험 등이 진행됐다.



창원교도소 | 교위 김난희

경남대·동서대 경찰학과 참관 진행

창원교도소는 지난 5월 22일 경남대 및 동서대 경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수용동과 직업훈련장 견학, 교정장비 체험, 홍보 영상 시청 및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부산교도소 | 교위 고병우

마약 사범 재활 위한 '가족이음 프로그램' 진행

부산교도소는 지난 5월 2일 마약류사범 재활 지원을 위한 '가족이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회복이음 프로그램'의 일환인 이날 행사에는 6가족 10명이 참여, 출소 이후 단약과 재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가족의 지지와 동참을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항교도소 | 교사 예병웅

신규공무원 임용식 가져

포항교도소는 지난 5월 7일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 이번 임용식은 임명장 수여, 신고 및 전서, 꽃다발 전달, 축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규성 소장은 이날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연근

법무보호복지공단 참관행사 진행

진주교도소는 지난 5월 13일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직원과 보호위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사회복귀와 및 심리치료과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을 둘러봄으로써 수용자 처우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대구구치소 | 교사 박재원

수용자와 함께하는 '짜장면 데이' 진행

대구구치소는 지난 5월 22일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짜장면급식을 제공하는 '짜장면 데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종호 고문을 비롯한 23명의 교정위원과 대구 수성구 중식 봉사단 오종희 대표 등 14명이 참여, 1,300여 그릇의 짜장면을 직접 제공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양혁모

직원 단합 위한 체육·문화 행사 개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5월 20일 직원들의 단합과 사기 진작을 위한 체육·문화 행사를 진행했다. 부서별로 다양한 장소에서 실시된 이번 행사는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안동교도소 | 교도 이성규

신규 임용 및 전입 신고식 개최

안동교도소는 지난 5월 7일 신규 9급 임용 및 전입 직원 신고식을 개최했다. 이날 윤영주 소장과 각 과장은 신규 직원에게 계급장을 직접 달아주며 "교도소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황인옥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아·취임식 개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지난 5월 12일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결산 및 예산 심의, 2024년 활동 영상 시청, 회장 아·취임식으로 진행됐다. 임유정 소장은 신임 회장에게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송상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참관행사 실시

김천소년교도소는 지난 5월 1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관계자 33명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교정 홍보 영상 시청, 교정공무원 직무 소개 및 질의응답, 구내 참관 등으로 구성됐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손민성

신규 공무원 대상 임용식 개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지난 5월 7일 신규 임용 공무원 2명을 대상으로 임용식을 개최했다. 오선호 소장은 이날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근무해 달라"면서 "교도관으로서의 첫 걸음을 응원한다"는 말로 환영했다.

울산구치소 | 교사 우동우

전 직원 참여 체육행사 개최

울산구치소는 지난 5월 22일 전 직원과 교정위원이 함께하는 준계 체육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홀라후프 뿔기기, 8인 공 튀기기 등 단체경기과 OX퀴즈 같은 개인경기로 구성, 소통과 화합의 장을 제공했다.



경주교도소 | 교위 허준녕

전 직원 대상 건강검진 실시

경주교도소는 지난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박은옥 소장은 이와 관련, "건강검진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면서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통영구치소 | 교위 이성민

통영지청과 '화합의 날' 행사 개최

통영구치소는 지난 5월 19일 창원지청 통영지청과 함께 '화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직원 간 소통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밀양구치소 | 교위 김영근

'짜장면 데이' 통해 수용자 위로

밀양구치소는 지난 5월 14일 교정협의회 회원으로 수용자 대상 '짜장면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서는 박명오 경일루 대표 등 요리사들이 600인분의 짜장면을 직접 조리했다.

상주교도소 | 교사 황봉기

사별초교에 장학금 수여 및 준법교육 진행

상주교도소는 지난 5월 20일 사별초등학교를 방문, '달팽이 봉사단' 장학금을 전달하고, 4~6학년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보라미 준법교실'을 운영했다. 준법교육과 교도관 직업 소개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교정 이미지 개선과 청소년 범죄 예방에 기여했다.

거창구치소 | 교도 방준철

부처님 오신 날 맞아 해인사 기부 받아

거창구치소는 지난 5월 1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해인사로부터 썬설기, 우유, 바나나, 오렌지 각 500개씩을 기부받았다. 기부받은 물품은 수용자 특식으로 제공되었으며, 수용자들은 이를 통해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박헌도

가정의 달 맞아 사랑나눔 실천

대전지방교정청은 지난 5월 15일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청 직원들은 한부모가정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으며, 자발적 봉사 모임인 '한우물봉사단'은 아동복지시설 천왕원을 찾아 성금과 생필품을 전달한 뒤 환경을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대전교도소 | 교위 송인혁

한남대 법학부 학생 참관행사 진행

대전교도소는 지난 5월 13일 한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부 교수 및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법학 전공 학생들에게 교정행정을 소개하고 교정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제공했다.



청주교도소 | 교위 송화섭

수용자 난동 대비 모의 훈련 실시

청주교도소는 지난 5월 16일 수용자가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일으키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 진압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 능력 향상과 상황 전파, 출동 인력 간 체계적 역할 분담, 교정장비 등 적정한 사용 여부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천안교도소 | 교도 김지현

가정의 달 맞아 직원 가족 초청

천안교도소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5월 9일 직원 가족들을

초청, 참관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가족들은 교정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교정공무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했으며, 직원들은 가족과 함께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이지은

한남대 학생 대상 참관행사 실시

청주여자교도소는 지난 5월 14일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교정공무원 이미지 제고 및 교정행정 홍보를 위해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주요 시설을 견학하며 변화된 교정 행정을 직접 체험했다.

공주교도소 | 교사 정조원

대전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영접

공주교도소는 지난 5월 14일 오세훈 대전지방교정청장의 방문을 받았다. 오 청장은 이날 노후 수용시설 상태와 수용자 처우를 꼼꼼히 확인한 뒤, "엄정한 수용관리를 통한 수용질서 확립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

세명대 경찰학과 대상 참관행사 가저

충주구치소는 지난 5월 8일 제천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성수 지도교수와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가졌다.

변화하는 교정행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교정공무원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시설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홍성교도소 | 교도 이재진

대전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홍성교도소는 지난 5월 21일 대전지방교정청 오세훈 청장의 정책현장 방문을 맞아 업무보고, 현안 논의, 구내·외 순시, 기념 촬영, 오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직원 근무환경과 수용관리 실태 등 현장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구자호

백석대 학생 대상 참관행사 진행

천안개방교도소는 지난 5월 13일과 16일 백석대학교에서 범죄교정학을 전공하는 교수와 학생 82명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교정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위 박효진

수용자 대상 짜장 나눔 행사 진행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지난 5월 20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수용생활 격려를 위해 짜장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서산지소 교정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이태무 회장을 포함한 교정위원 7명이 동참해 봉사활동의 의미를 더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전용배

인권 감수성 향상 위한 교육 실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지난 5월 13일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위촉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인권과 존엄의 심화 개념부터 혐오 표현 등 인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장우영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참배 행사

광주지방교정청은 지난 5월 16일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는 참배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 국립묘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지역 국가 및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교도소 | 교도 김거현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현장 견학

광주교도소는 지난 5월 15일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견학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참가 학생들은 수용 현황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수용자 거실, 직업훈련장, 특별사법경찰팀 등을 둘러보며 교정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전주교도소 | 교위 조연호

교도소 인근 학생 13명을 선정 장학금 전달

전주교도소는 지난 5월 20일 교도소 인근 초·중·고등학교 학생 13명을 선정해 총 6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나누미장학회의 모금으로 마련됐으며,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1인당 50만 원씩 지급했다.

순천교도소 | 교위 신광식

보안청사 직원휴게실 새단장

순천교도소는 최근 직원의 복지 향상 및 사기 증진을 위해 보안청사 내 직원휴게실 리모델링을 완공했다. 카페 분위기로 재구성된 해당 공간은 '직원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 투표와 심사를 거쳐 'CAFE 도란도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목포교도소 | 교사 김준휘

목포대학교 법경찰학부 학생 참관행사

목포교도소는 지난 5월 14일 목포대학교 법경찰학부 재학생 19명을 대상으로 교정행정 참관행사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심리치료팀, 직업훈련장, 자치수용동, 민원실 등을 둘러 보며 교정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군산교도소 | 교위 김세진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운영

군산교도소는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 예방과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심신케어'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전문 상담사가 직접 소를 방문해 심리·피지컬 상담을 진행했으며, 마음힐링 부스를 함께 운영해 직원들의 심신 안정을 도왔다.

제주교도소 | 교도 유상준

남해어업관리단과 교류 행사 가저

제주교도소는 지난 5월 19일 남해어업관리단과 상호 우호

증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교류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남해어업관리단 직원 기명이 교도소 시설을 참관하고, 오후에는 교도소 직원들이 남해어업관리단을 찾아 선상 체험을 함께했다.



장흥교도소 | 교위 윤창열

전 직원 대상 소프트웨어 관리 교육 실시

장흥교도소는 지난 5월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번 교육은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해남교도소 | 교사 안창수

보라미 봉사단 봉사활동 실시

해남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은 지난 5월 27일 '해남 임마누엘 공동체'를 방문, 환경미화과 청소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는 가석방 예정 수용자 5명이 함께했다. 윤대하 소장은 이와 관련, "사회구성원으로 이바지하며 살아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교도소 | 교도 김대현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실시

정읍교도소는 지난 5월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음주운전은 3대 중대비위 행위 중 하나인 바, 이번 대회를 통해 직원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하고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 및 확산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모범 공무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감 이상신

이상신 교감은 1998년 9급 교도로 임용된 후 25여 년간 정령하고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 왔다. 교정행정 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했으며, 교정위원 및 수용자 가족과의 친절한 상담을 통해 기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했다. 현재는 사회복귀과에서 귀휴 업무를 맡아 수용자의 가족 관계 회복과 심신 안정을 돕고 있다.

대구구치소 | 교사 정의찬

정의찬 교사는 최근 입소 수형자의 휴대품 검사 중 마약류를 발견,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보안2부 입·출소 담당인 정 교사는 지난 4월, 새로 입소한 수형자의 서류가방을 점검하던 중 투명 비닐 지퍼백 4개(필로폰 주정 가루 3봉지, 대마 주정 가루 1봉지)와 주사기 3개를 발견했다. 이로써 교정시설 내 마약 유입을 차단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충주구치소 | 교사 김현성

김현성 교사는 지난 4월 29일, 6수용동 인원 점검 중 발생한 수용자 간 폭행 상황을 신속히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며 모범을 보였다. 수용자 간 폭행 장면을 목격한 김 교사는 피해 수용자를 면담하고 찰과상 및 타박상을 확인한 즉시 상부에 보고, 관련 수용자들에 대한 징벌 처분 및 사건 승치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로써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사건 초기 대응, 법질서 확립은 물론 교정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했다.

군산교도소 | 교위 김석일

김석일 교위는 충무과 의무교도대원 담당자로서 평소 요원들의 물품관리와 생활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썼다. 또한 대원들이 올바른 복무 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복무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충과 어려움까지 진심으로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모범을 보였다. 이로써 사고 없는 병영생활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의무교도대원들의 생활 안정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월간 교정’과 함께하는 초성퀴즈 이벤트

초성퀴즈 도전하고,
교정의 가치를 함께 나눠요!

‘군산교도소’는 1910년 7월 1일 월명산 중턱의
‘나무 울타리 감옥’으로 시작했다. 이때부터 1946년
군산형무소로 승격되기 전까지 불렸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힌트



광주지방교청청 산하의 군산교도소는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의병들이 항거하다
고초를 겪었던 역사적 현장이다.

ㄱ ㅈ ㄱ ㅀ ㄱ ㅅ ㅂ ㄱ

correct2023@naver.com로
정답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월간 <교정>이 교정 관련 논문을 모집합니다.
교정행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

교정행정과
관련된 모든 주제

종류

학위논문(석사, 박사),
학회 논문, 학술지 논문

제출
방법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23@naver.com) 원고 송부

※ 제출 시 성명과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게재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제22회 6.14. 세계 헌혈자의 날

2025년 헌혈자의 날

우리가 몰랐던 진짜 영웅들
우리가 마주할 진짜 영웅들

헌혈로 마음을 나누고 생명을 구하는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

